

2016 연차보고서

SNUAC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정효정(LHAMOJEONG)

여행작가/방송작가

저서 <당신에게 실크로드>, <남자 찾아 산티아고>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고, 낯선 곳에 머물며 경계 너머의 사람들을 만나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확장된 사유가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표지설명

이란 카산에 있는 술탄 아미르 아흐멧 목욕탕(Sultan Amir Ahmad Bathhouse). 16세기에 건축되어 최근까지 공중목욕탕의 기능을 했다. 이란의 목욕탕인 하맘(Hammam)은 이란인의 삶과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에게 기도하기 전 먼저 거쳐야 할 의식은 몸을 청결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과 마주하는 이들의 삶에서 하맘은 휴식과 사교의 기능을 담당하는 낙원이기도 했다.

4~5p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의 칼란 미나레트

12세기에 지어져 지금까지 부하라의 상징이 되었다.

11p

우즈베키스탄 마르길란의 비단 짜는 소녀

기원전 1세기부터 이어진 방식 그대로 비단을 짜고 있다.

17p

이란 시라즈의 나시르 올 몰크 모스크에서 만난 차도르를 쓴 소녀

36p

높이 47m로 실크로드의 등대 기능을 하기도 했던 칼란 미나레트 이곳은 사형수를 처형하는 처형장이기도 했다.

41p

키르기스스탄, 해발 3600m의 송쿨호수에서 만난 소녀들 라디오를 간이발전기에 연결시켜 음악을 틀었다.

48p

우즈베키스탄의 서쪽 끝, 무이낙. 한때 번성했던 항구였으나 이랄해의 고갈로 지금은 폐선만 남아있다.

54p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구소련의 배지나 훈장들은 이제 기념품이 되어 시장 한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61p

이란 시라즈의 나시르 알 몰크 모스크,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이 모스크는 이른 아침에 가면 빛의 축제를 만날 수 있다.

66p 上

우즈베키스탄 마르길란의 실 짜는 할머니

66p 下

타지키스탄 마르게브에서 맞은 어느 라마단의 저녁

67p

세상의 절반, 이란 이스파한

이맘광장에는 밤마다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다.



비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SNUAC)는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미래 창발적 지식 창출과 공유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세계적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의 공생 발전에 기여한다.



2016 연차보고서 목차

7 인사말

8 아시아연구소의 2016년

10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36 올해의 포커스

아시아 연구 학자들, 서울에서 아시아를 논하다 /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 /
아시아의 가족 - SNU Family Index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연구 / 실크로드의 진주, 우즈베키스탄을 만나다 /
연구연수생, 아시아연구소에서 날개를 달다 / 아시아연구소의 ODA, 사회공헌의 첫걸음을 떼다

40 학술활동

49 출판

아시아리뷰 /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
아시아연구소 총서 /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시리즈

55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56 아시아연구소 외부 연구지원사업

58 교육

KF Global e-School Program /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 동남아시아전문가 심화과정 /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

60 학문후속세대

연구연수생, 책 속에서 필드까지의 경험을 통한 아시아 미래전문가 양성 / 아시아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

62 미디어

아시아연구소 미디어의 중심, 홈페이지 /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수 4,000명 돌파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식〉 2주년 14호 발간 / IIAS 뉴스레터 동북아 소식통으로서의 아시아연구소

64 후원 / 재정

65 연혁

68 사람들

내실 있는 연구 기관으로의 도약 ...
또 한 번의 질적 변환을 위한 발돋움

인사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2016년도 한 해의 주요 연구 성과 및 현황을 정리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설립 이후 아시아연구소의 지난 8년은 '아시아 연구'라는 장(場)에서 내적으로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외적으로는 연구 주체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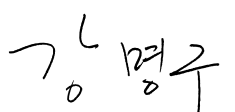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학으로서의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로서의 한국학'이라는 인식론적 틀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맥락에 기반을 둔 아시아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국경 네트워크를 널리 개방하여 공모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면 개방한 연구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시아 연구소가 지향한 '펼침(extension)'으로서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의 '겹침(folding)'으로서 한국연구를 구현해 내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2017년에는 아시아연구소가 내실 있는 행정과 운영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구소 내부의 행정 및 기획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 할 것입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 안에서 아시아연구소가 연구기관으로서 갖춰나가야 할 투명하고 튼튼한 행정 엔진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년간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연구 기관으로서 독자적이며 주체적인 지식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가속화되는 아시아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연구 결과물의 홍수 속에서 아시아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 고민하는 연구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에는 아시아연구소가 내실 있는 연구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질적 변환을 위해 발돋움하는 길에 애정과 관심으로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3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아시아연구소의 2016년

연구소 출범 7년째를 맞은 아시아연구소는 한편으로는 글로벌 차원의 학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맥락에 기반을 둔 아시아 연구를 지향하면서 질적 도약을 이뤄나가는 한 해를 보냈다.

한국의 맥락에서 아시아 연구의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다

아시아 연구의 국제적 확장

2016년은 아시아연구소가 국경과 경계를 넘어서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한국학으로서의 아시아 연구’, ‘아시아 연구로서의 한국학’이라는 연구 의제를 구현하는 해였다. 아시아연구소는 미국의 저명한 학술단체인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와 예일대, 싱가포르국립대, 홍콩대, 독일 괴팅겐대 등과 함께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을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대에서 개최하였다. 이 국제회의에서는 토론토대의 Lisa Yoneyama 교수가 “국민사와 냉전: 범아시아적, 범태평양적 비평”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국제공모를 거쳐 약 15명씩 선발된 10개의 주제별 워크숍 참가자들은 서울대에서 4일간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연구소는 이 행사에 이어 2017년부터 SSRC의 InterAsia Program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른 파트너 대학들 및 연구단체들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확대시켜 아시아 연구의 국제적 허브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또한 2016년 10월 21일에는 아시아연구소에서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종희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와 임현진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 워크숍에서는 “국제화 시대의 동아시아에서의 문화, 정치 그리고 시장”, “신자유주의 동아시아의 문화적 갈등과 문화 산업”,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정치와 온라인 문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연구기반의 구축과 내실화

아시아연구소는 3개의 지역연구 센터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과 6개의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아시아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에 동북아시아센터는 거제 포로수용소와 동북아의 문화운동, 북한 대학에, 동남아시아센터는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소비문화와 메콩 유역을 둘러싼 발전과 거버넌스, 기후 등의 주제에, 그리고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의 역할과 고려인의 전통문화에 주목하였다. 한국 사회과학자료원(KOSSDA)은 사회과학 연구기반을 확충하면서 아시아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청년들에 대한 비교연구, 미-중관계 프로그램은 미-중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제와 시민정치에 대한 학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최근 한국 시민사회에서 부상한 사회적경제, 지역협력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들,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환경협력 프로그램에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융합을 통한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며 한 해를 보냈다. 또한 중점연구소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의 2단계를 마치고 3단계로 진입하였으며,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동아시아의 압축적 도시화와 위험경관, 예외적 공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학술활동들은 아시아연구소가 한국의 맥락에서 아시아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 질적 성장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획과제 사업의 확대

아시아연구소는 국제적 차원의 지식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에는 기획연구과제 사업을 더욱 확대하였고, 다수의 우수한 연구계획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아시아의 ‘불안정 노동’ 비교연구”, “아시아 핵에너지 비교정치-핵에너지개발 국가 이론의 개발 및 적용”, “동아시아의 컨버전스 문화”, “4차 산업혁명에 기회의 창인가 중진국합정을 고찰시킬 것인가: 동남아의 메콩델타와 폐농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등 12개의 아시아연구 기획과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아시아 연구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생산구조를 넘어 학문 연구의 자립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출판 성과를 풍년 맞은 2016년

2016년은 출판 성과물 풍년의 해였다.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정기 학술지 <아시아리뷰>(연 2회 발행)에서 아시아자본주의, 아시아투어리즘, 자본주의 문화 등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2016년 한 해 동안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2권, <아시아연구 총서> 2권,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5권,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시리즈> 3권 등 총 12권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특히, 2015년에 아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한 <글로벌 패러독스: 아시아의 도전과 과제(2015)>(임현진 교수 외)와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2015)>(김의영 교수 외)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육성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아시아연구소는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5기와 6기 연구연수생들을 배출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아시아와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연구연수생들은 아시아학 개론 수업, 자치 세미나, 학술행사 참관, 답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아시아연구소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e-School Program을 통해 국제 한국학 강좌를 화상강의로 제공하고 있다. 2016년 e-School Program에는 중국의 칭화대, 러시아의 고등경제대, 독일의 튀빙겐대, 프랑스의 파리7대학, 이남코, 보르도-몽테뉴대, 베트남 국립하노이인문사회대의 학생 314명이 11개 강좌를 수강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연구 방법론 교육프로그램, 체험형 한·일 국제공동 교육 프로그램인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 그리고 동남아시아센터가 KOTRA 아카데미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지역전문가 심화과정(인도네시아 편)을 운영하였다.



국내외의 사회공헌 활동 동참

아시아연구소는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하였다. UN 기구, ADB 등에서 일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중과의 만남을 갖는 세 차례의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에는 국제·국내의 국제개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다수 참가하여 열린 토론을 벌였고, 국제개발협력의 실체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아시아연구소는 서울대의 학부, 대학원 학생들을 모집하여 두 차례 ‘필리핀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국제기구와 불라칸주 타워빌 집단 이주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과정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아시아연구소 필리핀 글로벌사회공헌활동(불라칸지역)

2016년 아시아연구소는 활발한 연구와 교육 활동,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내실을 다지면서 풍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썼다. 이러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는 2017년 아시아연구소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아시아연구소는 국내의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한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학계 및 경제, 산업계 등 지식사회가 요청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회의 성장 발전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016년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3개의 지역센터 및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6개의 주제 프로그램의 연구와 활동을 통해 SSCI급 논문 게재 및 단행본 출간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동북아시아센터는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상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동아시아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억과 경험, 공간과 유적, 문화와 같은 역사적 유산과 흔적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주요 연구방향으로 설정하여 한국과 북한, 즉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과의 중첩적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2016년 동북아시아센터는 정근식 교수 후임으로 이정훈 교수가 새로운 센터장으로 취임하여 그동안 지속해온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거제 포로수용소와 문화유산 연구 및 북한대학 연구

동북아시아센터

연구 주제

2016년도 동북아시아센터는 이전 연도와 연속성을 가지고 포로수용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탈냉전과 함께 부상하고 있는 문화운동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특히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타당성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보다 실증적으로 역사유산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의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 대학 연구를 보다 심화시켰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동북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운동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연구단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전쟁기 전쟁포로수용소는 26개소의 정식 수용소와 임시 및 포로집결소 가운데 거제, 통영, 인천, 제주도, 논산, 광주, 영천 등지에 잔존유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외 17개국 33개 기관에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기록물이 산재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포로수용소 기록물과 잔존 유적지는 냉전 문화유산의 가치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각종 포로수용소 관련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 등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016 주요 성과

첫째,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타당성 연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답사 및 잔존 유적지 건물 지표조사를 5차례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국가기록원 외 10개 국내 기관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외 19개 국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포로수용소 관련 기록물 목록 작성 작업을 통하여 포로수용소 아카이브 센터 건립 로드맵과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타당성 및 등재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관련 기록물을 집대성하는 큰 성과를 낳았다. 기존 연구에 바탕으로 문서와 미문자(사진·동영

상·음성 기록물·유물) 기록물이 국내외에 얼마나 소장되었는지, 그 가치성을 검증했다. 또한 잔존유적지의 현장 연구(Fieldwork)에서 잔존유적지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냉전 문화유산의 역사성에 따라 작성된 연혁과 기록물에 근거한 건물 또는 부지(Site)의 변동, 수용소 항공사진 등을 통한 수용소 위치고증까지 담아내는 연구 성과가 나왔다. 본 연구를 통해 아카이브 센터 건립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둘째, 통영 한산면 추봉, 용초도 포로수용소 다큐멘터리 연구를 진행하였다. 4개월의 시간을 들여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조사 연구를 하였다. 또한 한산대첩 행사 기간 중 용초 및 추봉도 1952년 사진전을 주최하였고,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기억의 터'라는 30분짜리 다큐멘터리와 5분짜리 홍보영상을 제작하였다.

셋째, 북한 대학의 역사·현실·전망에 대한 연구의 후속적인 심화연구로, 북한 대학 교원 및 교수진 등 전문가 대상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쇠퇴에 관한 비교연구: 북한의 대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소련형 대학들을 살피고 이들과 북한 대학 사이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같은 주제로 학술대회에서는 중국과 소련뿐 아니라 동독, 베트남의 대학 교육을 살펴보고, 북한 대학과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 대학과 소련형 대학들과의 비교연구, 북한 교육 관련 출신자 및 탈북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인터뷰, 학술 행사에서의 발표 논문들을 취합하여 단행본으로 묶어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넷째, 동북아시아센터는 2016년 광주비엔날레 인프라스쿨의 하나로 개최되는 인프라스쿨의 워크숍을 공동 주관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비엔날레의 전망을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술과 사회의 관계와 매개에 대한 담론의 형성을 모색하였다.



향후 과제 및 비전

앞으로 동북아시아센터는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로의 회귀(미국)’로 요약되는 동북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최근 변화가 해당 사회 내부 및 상호 간의 관계에 불러일으킨 작용 전반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러한 변화를 ‘관계와 연동’의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을 연구 및 활동 계획의 기본적 지향점으로 삼고자 한다. 기존의 지역 연구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을 어떻게 아시아적 맥락에서 사고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을 지역화(regionalization)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중국의 현안과 관련된 강연 시리즈를 기획하여 ‘콜로키움 차이나 시리즈’를 개최한다. 또한 우수커(遊客) 연구를 통하여 현재 연인원 1억 명을 초과한 중국의 해외여행객(우수커, 遊客, tourist를 가리키는 중국어) 현상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주변국에 일으키는 경제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의 실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전 지구적 맥락에서의 한반도 현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동북아의 내적 갈등 및 대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북유럽 지역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북한을 탈 악마화하기 De-demonizing North Korea’를 통해 비이성적 불량국가라는 단면적 이미지로 고착된 북한의 이미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의 재균형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 정근식(2016). 동아시아 '냉전의 섬'에서의 평화사상과 연대. **아시아리뷰** 5권 2호, 서울대아시아연구소
- 정근식(2016). 전쟁의 사회사. **〈사회사/역사사회학〉**. 다산출판사
- 이정훈 공저(2016). 4장 사면과 금문의 '심리전'. **〈금문도의 재탄생〉**. 진인진
- 전갑생(2016). **〈거제근현대문헌총서 5권-미군정기와 1960년 이전 거제도 중요문서〉**. 도서출판 선인
- 전갑생(2016). **〈거제근현대문헌총서 7권-1960년 이후 거제도 중요문서〉**. 도서출판 선인
- 전갑생(2016). 한국 전쟁기 인천의 미군기지와 전쟁포로수용소. **황해문화** 통권 제93호



거제 포로수용소 모습(1952)

사람들



디렉터: 이정훈(중어중문학과)

공동연구원: 남은영(아시아연구소), 전갑생(아시아연구소), 주윤정(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송향경(서울대), 이수진(서울대)

* 2016년 4월까지 정근식 교수(사회학과/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디렉터 역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온 동남아시아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 후 한국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동남아시아센터는 지역과 주제를 결합한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재단이나 외교부 등의 선정 과제를 진행하며, 후속 연구진을 배양하는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연구 주제 창출과 동남아 지역 연구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슬람 금융 및 할랄 인증과 관련한 해외 저명 학자의 초청 세미나를 연속해서 개최해 왔다.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동남아시아센터 소비문화 연구와 지속가능한 메콩 지역 거버넌스 연구

연구 주제

2016년도 동남아시아센터는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라는 주제하에 ‘소비문화 연구와 소매 유통시장 속의 소비자전략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2016년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소비, 고소득·중산층 소비, 신세대 소비, 종족(ethnic) 소비, 로컬 음식 소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또 소매유통시장과 관련해서는 하이퍼마켓, 편의점, 소핑몰 등을 중심으로 유통업체의 영업전략과 소비자의 구매 전략이 어떻게 부합하고 차별화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편, 메콩 유역에 대한 연구로는 기후변화, 수력 발전, 연계성, 개발의 법적 과제, 개별 국가별 전략 및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집중 연구와 비교 연구를 병행하며 연구의 깊이를 심화하고 있다.

2016 주요 성과

2016년 동남아시아센터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이 종교, 종족, 계층 등의 주제별 관심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을 연구해왔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소비 전개 양상, 말레이시아 식품시장의 할랄화와 할랄 인증제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에 미치는 이슬람의 파급력을 연구했다. 중산층 소비자에 대한 연구로서 인도네시아에서 공공공간으로서 쇼핑몰이 갖는 기능,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을 연구했으며, 인도네시아 토착 종족의 대표적인 음식들이 어떻게 상업화되고 있는지, 다종족 다문화 사회인 인도네시아에서 ‘음식’을 통한 민족적 정체성 형성

이 어떤 의미인지 분석했다. 종족적 소비영역에서 말레이시아 화인들의 음식 특징은 무엇이며, 이 음식의 소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종족적 구별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자카르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도시인들의 생활양식을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유통시장에 대한 연구 영역에서 외국인 투자자 제한 정책에 따른 인도네시아 편의점의 변형 및 소비자들의 편의점 이용 방식을 연구했다. 이처럼 본 연구단은 개별 주제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와 트렌드를 연구했다.한편 공동 연구로서 동남아 국가에서의 사회공헌사업, 아세안 국가에 대한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연구 수행 및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편, 메콩 지역은 이해관계자별 에너지 협력, 연계성, 법적 고찰, 개발격차 해소와 같은 독창적 주제를 시도하면서도 다양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는 시민사회의 교류 협력 및 대안 경제 네트워크, 이익 공유, 국경무역, 환경분쟁 해결, 거버넌스 등의 세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반구축사업으로는 연구주제 및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이슬람 경제의 부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한국 기업 및 정부의 이슬람 경제에 대한 지적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과 할랄을 중심으로 초청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소비문화학회, 한국동남아학회 등에서 세션을 구성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또한 한-아세안센터 등과 협력하여 메콩 지역 이슈를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했다.



향후 과제 및 비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소비문화와 관련해서는 2017년 상반기에 개별 연구 결과물을 종합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다. 더불어 2017년 9월부터 시작할 포스트 신흥지역연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개별 연구자 주제를 발굴할 것이다. 포스트 신흥지역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국가를 베트남과 필리핀까지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메콩 연구에서는 메콩 거버넌스 개선이나 창출을 위한 이익공유, 국경무역, 법 제도적 협력방안에 대한 제시와 더불어 한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메콩 유역 거버넌스와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될 4년간의 기반구축연구를 통해 기존 신흥지역연구와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며, '동남아 이슬람 경제'라는 신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오명석 외(2016).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 베트남 편》**. 서울대출판문화원

엄은희 외(2016).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발전론》**. 푸른길

엄은희(2016). 동남아시아 농촌마을의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CBET 비교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 제19권 제2호

최경희 외(2016). **《ASEAN Community and Managing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SEJONG PRESS



한-아세안센터 열린강좌 시리즈(2016. 9. 22 - 10. 27)



기반구축사업 초청강연(2016. 10. 12) 'Anti-Debt: Islam and the Critique of Finance Capitalism' - Daromir Rudnyckij 교수

사람들



디렉터: 오명석(인류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태윤(국제기술농업대학원), 김형준(강원대), 유창조(동국대), 윤순진(환경대학원, 메콩연구 책임자), 이상국(연세대), 이수현(동국대), 이승호(고려대), 이응철(덕성여대)

전임연구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요한(아시아연구소), 이지혁(아시아연구소),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정범모(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노미영(성신여대), 박지현(서울대), 신동혁(서울대), 이경민(서울대), 이유경(고려대), 이재은(서울대), 임미정(서울대), 전은정(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해 왔다. 2014년에는 소련 해체 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세력으로서 형성되어 온 과정을 대중국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15년에는 이들이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어 가는 모습을 재구성해 보았다. 또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삶, 전통문화, 신문화에 대한 자료를 조사·수집·자료화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연구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2016년에도 중앙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해석을 시도했다.

중앙아시아 사회 현상으로서의 이슬람 연구

연구 주제

2016년도 중앙아시아센터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문화적 현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센터에서는 앞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체들을 지역적·지구적 차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규정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6년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이슬람이라는 이 지역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종교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연구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소련 해체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 지역 이슬람의 특징과 역할을 해당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다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두 가지 다른 연구도 진행하였다. 하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자료를 수집·분류·전자화하는 작업이었다. 그 일환으로 2016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관련 자료들을 인터뷰, 사진, 영상, 문서 등의 형태로 수집하고 정리했다.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 지역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작업이었다. 중앙아시아센터에서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을 초청강연, 전통악기공연, 영화제, 학술제, 사진전, 풍물전 등의 형태로 대중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을 보다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앙아시아센터

2016 주요 성과

2016년도 중앙아시아센터의 관련 연구자들은 앞서 진행한 연구를 논문 형태로 공개했다. 고기영은 100개가 넘는 민족들을 내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민족국가의 모습을 가지게 된 현대사적 배경을 타타르와 고려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김태연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격 이슬람 조직들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시도를 했다. 양승조는 19세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근대화 시도와 제정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이 카자흐 스텝지역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윤익중은 세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도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어떠한 역할을 추구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선우는 카리모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지배 세력이 권력을 획득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이슬람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영관은 현재 전 세계적인 화두들 중 하나인 이슬람 자본 문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이 연구성과들을 기반으로 논문 모음집 형식의 단행본을 2017년 상반기에 출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본 센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현지 조사를 통해 도서 및 문건 72건, 사진 3,471건, 영상 208건, 음향 264건, 행사 자료 8건, 기타 자료 190건 등을 수집했다. 이것들은 향후 DB화를 통해 연구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실크로드 사진전 설명회: 정효정 작가(왼쪽 첫 번째)



중앙아시아 이슬람 초청강연자들: 미르사딕 이스하코프(오른쪽 끝), 슈흐랏 욘코체프(왼쪽에서 두 번째)



향후 과제 및 비전

중앙아시아센터에서는 향후 4년간 크게 네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중앙아시아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등장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생 국가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지역적·국가적 정체성 재정립을 커다란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풀어나가는데 매진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 중 하나인 이슬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다른 이슬람 지역들에 비해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신학적으로 포용적이고,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영향으로 세속적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은 지역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주요한 준거 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복합적 특성과 근본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이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전제 위에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이주와 이산, 그리고 그 연장선상으로서의 민족 문제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민족들이 협력하고 대결하며 활동하는 공간이었다. 이에 더해 스탈린 시기에 강제이주가 진행되면서 이곳은 100여개가 넘는 민족들이 거주하는 이른바 '인종전시장'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지역에서 이주, 이산,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매우 민감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센터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착안해서 중앙아시아 민족문제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넷째, 유라시아 공간에 대한 관심과 그 한 축으로서의 동서교류 문제를 살피볼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의 지리적 중심지로서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본 센터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와 교류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동서교류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 목록

고가영(2016). 중앙아시아 크림 타타르인의 귀환운동 - 민족운동의 특수성에서 인권운동의 보편성으로. **서양사론** 제130권

고가영(2016). 카자흐스탄 베스페르막과 된장국: 민족정체성과 혼종성 사이의 고려인. **서양사학연구** 제38호

고가영(2016). 국내 난민(internal displaced persons)으로서의 크림 타타르인 - 나치의 코림반도 점령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독일연구** 제31호

고가영(2016). 우수리스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초국경적 만남과 위계화된 디아스포라. **역사문화연구** 제59집

김태연(2016).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IMU)과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IRPT)의 발생 조건과 요인 비교연구. **러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양승조(2016). 19세기 전반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부하라 아미르국의 중앙집권화. **송실사학** 제36권

양승조(2016).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지역 식민정책 - 유즈노우수리 지역 식민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사총** 제87권

양승조(2016). 예카테리나 2세 시기 제정 러시아의 이슬람 정책과 오렌부르크이슬람종무청(ОМДЦ)의 역할. **러시아연구** 제26권 제2호

윤익중(2016). 러시아-미국 관계발전과 중앙아시아 지역: 푸틴 3기 정권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0권 제3호

이선우(2016). 우즈베키스탄 가리모프 정부의 이슬람정책: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선택. **중소연구** 제40권 제3호

조영관(2016).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의 활동에 대한 연구. **슬라브학보** 제31권 제3호

사람들



디렉터: 신법식(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강정원(인류학과), 남영호(신한대), 오원교(경북대), 윤익중(한림국제대학원대), 이선우(정치외교학부), 정형호(전북대),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전임연구원: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김태연(아시아연구소),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루미안체바 사르다네(서울대), 박종요(서울대), 유수포바 소하바(서울대), 육성수(한국외대), 이금강(서울대), 이수영(서울대), 최리(서울대)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청년들의 현실과 꿈, 그리고 고뇌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4년동안 다양한 동아시아 학자들과 적극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2016년에는 한일 양국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청년들의 유형을 범주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청년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꿈과 그 의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청년세대의 희망과 고뇌

대중문화 프로그램

연구 주제

그동안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청년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 해왔으며, 다각도로 진행된 협력의 노력을 바탕으로 여러 의미 있는 결과물 을 만들어냈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다채로운 시각들 을 통해 바라본 각국 청년들에 대한 논의를 묶어 단행본 〈한중일 청년을 말 하다〉를 출간했다. 둘째, ‘한일청년 비교연구’를 진행하며 다양한 방법의 데 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 청년들을 6가지 군집 유형(소극 적 적응형, 참여/연대형, 자족형, 경쟁형, 반항/거부형)으로 분류하고, 청년 들의 경향을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의 국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실제 청년들을 인터뷰함 으로서 총체적으로 보았던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2014 년부터 중국 칭화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동아시아 창익세대의 비교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에서는 2016년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문항은 문화예술산업계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꿈’을 중심 으로 ‘꿈-자본(dream-capital)’, ‘상상(imagination)’, ‘희망(hope)’, ‘낙관 (optimism)’, ‘회복탄력성(resilience)’ 등 4가지 주요 차원 별 꿈, 즉 자본의 정도, 꿈의 내용, 진정성, 자기확신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꿈과 관련된 희망과 전망, 사회적 관계 등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2017년 여러 편 의 논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2016년 6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AAS-in-Asia’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하고, 해외 학자 들과 교류하는 등 국제 협력사업 및 네트워킹에도 힘써왔다. 이 과정에 서 ‘동아시아 창익세대’ 연구팀은 진 빈(중국 칭화대), 추야제 교수(푸단 대)와 두 차례에 걸쳐 공동연구를 위한 워크숍 및 연구성과에 대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 주요 성과

2017년도 봄에는 〈한일 청년을 보여주다(가제)〉라는 단행본을 출간할 예 정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 청년의 삶과 현 실인식, 그리고 희망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청년들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게 된 과정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2차 대전 이후 전 개된 청년 담론의 흐름 특히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약화된 양국 청년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포함된다. 또한 한 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각계각층의 청년들 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도 포함될 예정이다.

연구논문으로는 연구책임자 김홍중 교수의 두 편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먼 저, ‘청년 여성 프리캐리야트의 얼굴 - 웹툰 〈미지의 세계〉를 중심으로’는 웹툰의 주인공 여성의 얼굴 표상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헬조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웹툰 주인공의 사회적 얼 굴은 프리캐리어스(precarius)한 존재를 상징하며, 그의 취약성은 프레카 리아트라는 계급, 여성이라는 젠더, 그리고 소위 ‘n포 세대’라고 하는 청년 세대의 세 가지 사회학적 차원들의 중첩을 보여준다. ‘진정성의 수행과 창 조적 자아’의 꿈: 시문학동인 P에 대한 사례연구’는 이 시대에 드물게 시 를 쓰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로서, 그들의 시적 실천들의 의 미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의 중첩된 진정성임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의 ‘진정한 시’는 문단제도가 형식화하고 규범화하여 가르치는 시적 스타일과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시를 의미한다. 둘째, 그들의 ‘진정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시적 열망과 취향 을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이다. 셋째, 이 들이 열망하는 것의 핵심에는 ‘진정한 자아’라는 꿈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삶을 사는 자아, 생존추구적 삶과 대립하는 창조 성의 추구로 특징 지어지는 자아를 의미한다.



향후 과제 및 비전

대중문화 프로그램 구성원들은 2017년에도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 테마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계속 연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한일 청년에 대한 비교연구 성과는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둘째, 중국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동아시아 창의세대 연구팀'에서는 2017년 동아시아에서 열리는 학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연구 성과물들을 발표하고, 논문과 단행본 형식으로 그 결과물을 출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창의적 청년들과 일반 청년들의 비교, 중국의 창의적 청년들과 일반 청년들의 비교 및 한국-중국 청년들에 대한 비교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어서 구체적인 몇 가지 변수들에 집중된 계량적 분석 및 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다 풍성한 연구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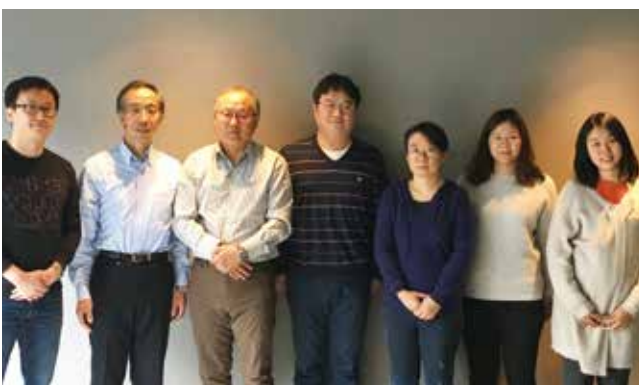
연구 성과 목록

강명구·김홍중·신혜선 공편(2016). **《한중일 청년을 말한다》**. 진인진

강명구(2016). **《훈민과 계몽》**. 나남

김홍중(2016). 진정성의 수행과 창조적 자아에의 꿈: 시문학동인 P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사회 제50집 제1호**

김홍중(2016). 청년 여성 프레카리아트의 얼굴 - 웹툰 <미지의 세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30호**



2017년 1월 중국 칭화대의 '동아시아 창의세대' 공동연구팀과 함께한 미팅 및 워크숍



2016년 6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AAS-in-ASIA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중문화프로그램 연구진

사람들



디렉터: 김홍중(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예란(광운대), 심보선(경희사이버대)

전임연구원: 신혜선(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은지(서울대), 이상규(서울대)

미-중관계 프로그램(PUCR)은 미-중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 및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와 교류의 허브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활발한 학술교류와 정책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월례세미나와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세력전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를 출간했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좌표

연구 주제

미-중관계 프로그램의 주요 연구 방향은 중국의 부상과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중 관계가 동아시아 및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2016년에는 19~20세기에 일어난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평화적’ 세력전이의 사례를 기반으로 이것이 21세기 미-중 관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과 미국 사이 군사력 변화가 가져온 상호 인식의 문제, 그리고 금융패권을 대상으로 한 경쟁과 대립이 21세기 미-중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러한 세력전이의 과정이 평화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연구과정이었다.

또 남중국해, 한반도, 대만 그리고 동중국해 등을 두고 날로 첨증해가는 미-중 간의 ‘기싸움’(ego-fighting)이 미국과는 동맹의 관계이자 중국과는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한국에 던지는 전략적 딜레마의 현황과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주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미-중관계 프로그램

2016 주요 성과

2016년도 미-중관계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로는 우선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출간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주요 주제로 ‘패권국-부상국 간 상호인식’이라는 틀을 사용해 19~20세기에 일어난 영-미간 세력전이의 사례를 21세기 미-중 관계와 비교 분석해 세력전이의 발생과 함께 평화적 진행 과정의 전제조건을 찾아보는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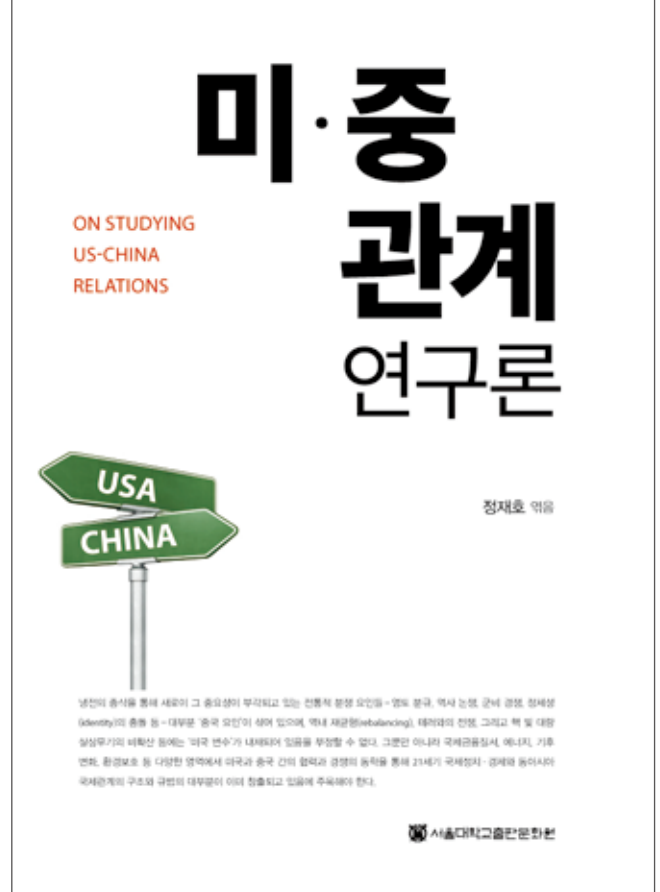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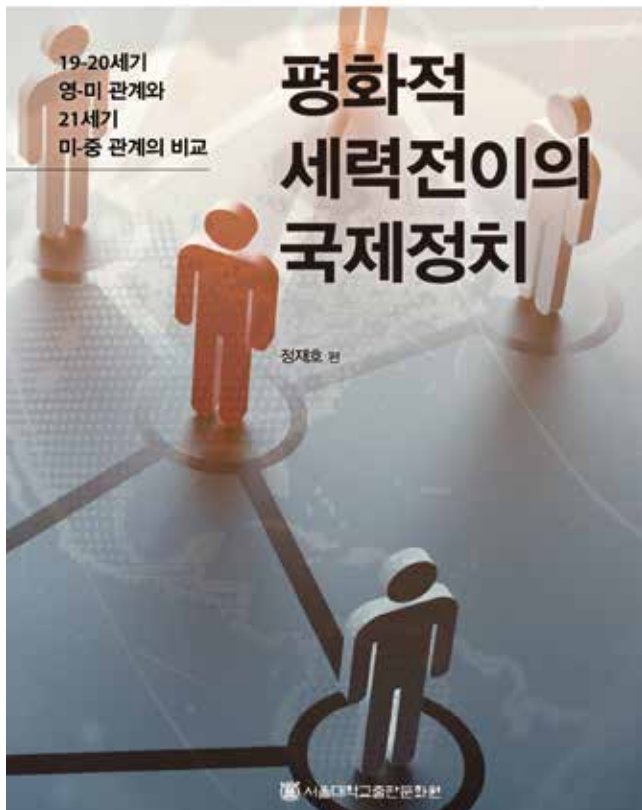
2016년 미-중관계 프로그램의 또 다른 성과로는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총 7회의 월례세미나와 총 6회의 학술 및 정책워크숍 개최를 들 수 있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의 한국의 딜레마 - 구체적으로는 RCEP, TPP, AIIB, CICA, 전승절 참석, THAAD,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한 -에 대한 워크숍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4년째 일본 동경대 대안정책연구소(PARI)와 함께 개최해온 ‘미-중 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한-일 대화’와 함께 중국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과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와의 워크숍 개최도 유의미한 성과였다.



2016년 11월에 열린 제5차 한-일 미중관계 회의



2016년 8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열린 워크숍



향후 과제 및 비전

본 프로그램에서는 2017~2018년의 기간에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 ASEAN 10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15개 국가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개입’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의 행태적 편차(behavioral variations)는 어떤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balancing), 편승(bandwagoning), 또는 위험분산(hedging) 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곧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를 겪고 있는 한국에 던지는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찾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더욱 다양한 국외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월례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이들의 해안을 공유하는 작업에 매진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 목록

- DooHwan Ahn(2016). From Hanover to Gibraltar: Cato's Letters (1720~23) in International Context. *History of European Ideas (A&HC)* Vol. 42, No. 8
- Jae Ho Chung(2016). Is South Korea in China's Orbit?. *Asia Policy* No. 21 (Co-authored with Jiyoung Kim)
- Jae Ho Chung(2016) *Centrifugal Empire: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un Joon Kim(2016). The Glob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The Role of Transitional Justice in Develop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0, No. 3
- Hun Joon Kim(2016). The Role of UN Commissions of Inquiry in Developing Global Human Rights: Prospects and Challenges. *한국정치학회보* Vol. 14, No. 2
- Hun Joon Kim(2016). Will IR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 be a Powerful Alternate?.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 9, No. 1
- 정재호(편)(2016).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사람들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공동연구원: 김현준(고려대), 안두환(정치외교학부)

연구보조원: 이한나(서울대), 학문양(서울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Center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은 2013년 출범 이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후발개도국 발전모델의 발전궤적을 비교분석하며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 및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대안적 사회전망을 그리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 실험을 통한 민주주의의 재발견

연구 주제

2016년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의 구현 양상을 학제적(interdisciplinary) 관점에서 분석하는 가운데, 오늘날 민주주의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회적경제와 시민정치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였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현장 활동가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문적 논의와 실천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보다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의제를 1) 사회적경제 연구 심화, 2) 전국단위의 시민정치 사례 탐구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진행해오던 ‘동네 안의 시민정치’ 기획을 심화시켜 ‘동네 안의 시민경제’라는 제목 하에 전국을 단위로 반여 년에 걸친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행위자들은 물론 상이한 층위의 정부 행위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입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추첨민주주의, 지역정치 및 생활정치 등 오늘날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정치의 다양한 구현 양상들에 대한 세미나 및 초청 강연을 통해 시민정치라는 의제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연구 과정에서 현장 활동가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문적 논의와 실천 간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사회적경제에 내재한 정치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고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2016 주요 성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은 2016년 아시아연구소와 사회과학재단(SSRC)이 공동 주최한 ‘InterAsian Connection V: Seoul’에서 “The Social Economy and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s in Asia”이란 제목의 세션을 기획하였다. 본 프로그램 연구진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석학 및 신진 연구자들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사례들을 공유하였으며, 그러한 가운데 아시아적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은 아시아연구소 기획연구 초청사업에 지원해 InterAsian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과의 논의 자리를 다시금 마련하고, 공동 연구결과물을 출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위시한 사회적경제의 혼종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학제간 연구형태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연구원들은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사회적경제의 사회과학적 접근: 혼종성과 다양성 다시 들여다보기’에서 발표를 통해 다층적이고 혼합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적경제의 학제간 연구 기틀을 마련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또 ‘동네 안의 시민정치’ 프로젝트의 경험을 토대로 ‘동네 안의 시민경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 대상을 사회적경제로 집중하고, 연구 지역을 서울시에서 전국단위로 넓히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민정치 프로젝트와 차별성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정부협의회 및 서울대 사회공헌단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가 및 연구자 특강을 개최하고, 연구의 중간결과를 한국정치학회에서 발표하는 등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나아가 학부생들의 연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은 현재 타 대학기관들과의 연계 하에 시민정치 교육에 관한 학제간 연구 및 협업까지도 실천하고 있다.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 과정에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하는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본 프로그램은 한국시민사회 연구, 전국 차원의 NGO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사회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런 토대 위에서 한국 시민사회, 아시아 시민사회, 그리고 지구 시민사회로 연구 대상과 범위를 구분하여 보다 특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 구축’, ‘대안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아시아 국제개발협력과 시민사회’ 그리고 ‘한·중·일 시민사회운동 비교연구’라는 4가지 주요 사업을 개발하였다. 향후 아시아 시민사회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아시아 각국 주요 NGO의 데이터베이스를 준비 중이다.

한국시민사회에 대한 성찰과 시민사회 프로그램 한·일 연구협력 토대 마련

연구 주제

2016년도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한국 시민사회 지형도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한 양적 연구 결과를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질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시민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 양적 연구를 질적으로 보완하고자 ‘한국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라는 연구를 기획하였다. 2016년에는 시민사회 프로그램 연구진이 주축이 되어 최근 한국 사회에 부상한 이슈-시민참여, 사회적경제, 개발협력, 지역정체 갈등, 노동, 기업 등-를 중심으로 한국 시민사회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분석, 진단 및 처방을 제시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총 6회에 걸친 기획 워크숍에서 발표한 글은 2017년 상반기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특별히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풀뿌리 차원에서 2016년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방문 및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2015년 지역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와 결합하여 단행본 <주민과 시민 사이: 한국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활동 톺아보기>를 2017년 2월에 출간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제6차 한-일 정치사회학회 연례학술회의 이후 Toru Oga 교수(규슈대)와 아시아연구소 공석기 박사가 6개월 동안 2회 상호방문 및 연구과제 개발 워크숍을 거쳐 한국과 일본 지역 시민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CSR)’이 어떤 역동적 특성을 보이는지 비교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를 2016년 9월에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라는 국제협력 연구계획서를 한국과 일본 연구재단에 각각 제출하였다. 서울과 후쿠오카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가지며, 향후 2년 동안 국제적인 연구자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 주요 성과

단행본 출판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6월에 출판된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진인진)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구축 사업’의 결과물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지형 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종합적인 기초 통계 리포트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기초통계의 부재로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없던 상황에서 전국적인 서베이로 통해 운동 영역별·지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의의를 지닌다.

2016년 8월에 기획 발간한 <시민행동지수로 본 서울지역 시민사회>(학예사)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과 한일장신대 NGO정책대학원 SSK-NGO 연구단의 연구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네 가지 개념, 즉 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그리고 정치·제도적 조건에 기초하여 개발한 ‘시민행동지수(HASK CAI)’(Civic Action Index)를 주목한다. 서울을 하나의 지역으로 접근하면서 서울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단체의 역동성을 시민행동지수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사는 서울시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시민행동지수의 4가지 차원-사회운동성,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정치·제도적 조건-을 중심으로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시민 사이: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활동 톺아보기>(진인진)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활동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마을에 주목하고, 마을이라는 풀뿌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25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NGO 등을 방문 및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여 풍부한 질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향후 과제 및 비전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아시아 시민사회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시아 시민사회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시민사회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역 및 국가별 대표 NGO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NGO를 조사 및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총 4년의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차연도(2017년)에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지형도(mapping)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차연도(2018년)에는 전년도에 확보한 표본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문헌자료 연구를 통하여 국가, 지역 및 영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4차연도(2019~2020년)에서는 아시아를 크게 5개 지역-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으로 구분하여 지역 및 국가별 표본으로 선정된 NGO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4년간의 연구과정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2년 단위로 2권의 단행본 <아시아 시민사회, 와일드 카드 NGO를 만나다 1 & 2>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첫 단행본은 국가, 지역 및 영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양적 연구가 될 것이며, 두 번째 단행본은 지역 및 국가별 대표적 NGO에 대한 사례연구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프로그램 연구진

연구 성과 목록

공석기·임현진(2016).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 진인진

공석기·조철민(2016). <시민행동지수로 본 서울지역 시민사회>. 학예사

이재열·임현진 편(2016). <아시아는 통한다: 흐름과 관계를 통해 본 지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공석기(2016). 서울 시민사회단체 역량 토크아보기: 동지형 정치기획구조와 시민행동지수를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제30권 제2호

김영춘·홍정표·공석기(2016). <창의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혁신 네트워크 촉진 및 플랫폼 개발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김태균(2016). 국제개발에서 사회발전으로: 한국 사회의 국제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사회발전론의 재조명. **경제와 사회** 제109호

김태균(2016).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론: 국익과 인도주의의 이분법을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도쿄 스카이뷰에서 내려다 본 도쿄 시내 전경

사람들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공동연구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감성규(아시아연구소), 김태균(국제대학원),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정영신(제주대)

연구보조원: 김태연(서울대), 유지연(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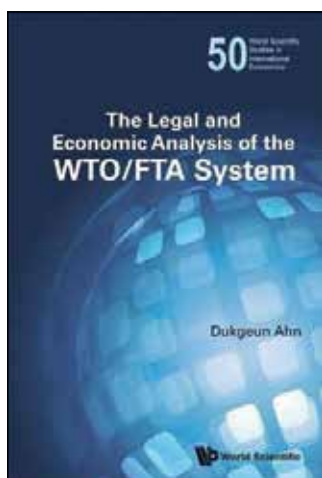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Center for Asia and Global Economic Order, 약칭 CAGEO)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약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를 위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상이론 및 메커니즘 디자인 분야,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및 법학적 연구 분야, 그리고 실증분석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 연구를 진행해왔다. 향후 국내외에 형성된 연구 네트워크와 축적된 데이터 및 연구능력을 기반으로 국제경제질서 재편과 아시아 관련 중심 이슈를 선도적으로 발굴,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연구

연구 주제

2016년도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아시아지역의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변화를 주목하고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국제통상, 경제통합, 기술개발과 표준화 등의 국제적 위험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국제무역체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국제적 현상과 문제에 대하여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며, 특히 기존의 경제이론과 계량분석 및 법학 연구를 융합하여 아시아의 경제질서를 연구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를 위한 국제경제질서의 재편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무역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 혹은 신흥국들 간 존재하는 국제경제질서 관련 이해관계 대립 및 조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그리고 규범적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러한 연구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2016 주요 성과

2016년도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8월에 단행본인 <혁신, 창조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방향>(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6)로 출간하였다. 책임 연구원과 공동연구원 3명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행한 이 단행본은 아시아연구소의 기획 연구과제로 선정된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단행본 출간은 아시아적 연구 맥락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소 사업과의 결합을 강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5개의 학술논문(4개의 SSCI 저널 논문)을 게재하였고, 1개의 영문 단행본 발행 및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핸드북 시리즈의 통상분야 핸드북에 1개의 북챕터 등을 게재하는 등 2016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소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학술대회 개최를 활발히 진행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 2번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기여하고자 학술활동에 보조연구원들을 공저자 등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왔다. 이러한 지원 결과 2016년에는 1명의 박사를 배출하였고, 참여 석사 과정 생 중 2명의 학생이 미시간주립대와 시카고대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한편, 2016년에도 공동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 통상체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책임연구원, 2명의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참여하여 세이프가드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WTO 회원국들 간 존재하는 운용 패턴 차이, 특히 신흥국들의 세이프가드 제도 남용 여부를 제도적·경제학적·실증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한 논문을 수정 보완 중이며, 2017년 초 SSCI급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향후 과제 및 비전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던 미국 및 EU 등 선진국 경제의 어려움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적 약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하여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선진국들 사이에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경제들 또한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전 세계적 확산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빠른 속도로 확산된 다양한 무역협정을 통해 형성된 국제경제질서의 유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며,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질서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프로그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아시아 및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positive analysis)뿐 아니라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을 진행할 것이다.



Economic Theory Workshop(2016, 10, 14)

연구 성과 목록

박지형·안덕근·이석배·이지홍(2016). **〈혁신 창조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 방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Dukgeun Ahn(2016). **〈The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the WTO/FTA System〉**. World Scientific/Singapore

Jee-Hyeong Park(2016). **〈Enforce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Handbook of Commercial Policy〉**. Elsevier/North Holland

안덕근·곽동철(2016). 아날로그 체제 하의 디지털무역 - 디지털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통상법률** 통권 제131호

Dukgeun Ahn and Alan Spearot(2016). US-Countervail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India: To Cumulate or Not Cumulate Products. **World Trade Review** Vol. 15, No. 2

Dukgeun Ahn and Jiyeong Yoo(2016). Security Exceptions in the World Trading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14, No. 2

Dukgeun Ahn and Maurizio Zanardi(forthcoming). China - HP-SSST: Last Part of Growing Pains. **World Trade Review** Vol.16, No. 2

Soonwoo Kwon, Sokbae Lee, and Jihong Lee(forthcoming).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ical Progress: Stylized Facts from Patent Citations, 1980-2011. **Economic Journal**

사람들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공동연구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서명환(경제학부), 이재민(법학전문대학원), 이지홍(경제학부)

전임연구원: 라미령(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노재연(숙명여대)

동아시아 지역은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점증하는 환경오염과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역내 생태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상호작용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에 환경협력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해당 상호작용을 복잡계적 시각에서 모의하는 다행위자시스템(multi-agent system)을 구축하고, 둘째, '아시아 공통 가치로서의 풍수'라는 표제하에 동아시아 지역이 공유하는 전통지식 및 경험과학 체계로서 풍수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환경인식을 정립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복잡계 및 사회생태시스템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대중화이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 DB를 구축, 아시아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다행위자 토지이용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여 각종 연구를 수행해왔다. 또한 연구자 모임을 구성하여 다수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복잡계 및 동아시아 전통지식의 대중화에 힘써왔다.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융합을 통한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경협력 프로그램

연구 주제

2016년도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총 4개의 주제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1차연도부터 구축해온 아시아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내 공간 정보의 축적,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서 지역환경 연구의 기초자료 생성이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11월에 개최된 IPBES(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아시아태평양 분과(Asia-Pacific Session)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생태계서비스 변화추세 및 방법론 별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18~22일에 국립생태원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를 위한 IPBES의 아시아지역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둘째는 2016년도에 기(既) 개발된 다행위자 토지이용의 사결정시스템의 활용이다. 아시아 5개 연구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효율화 및 토지환경파괴 저감을 위한 비교 연구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공동 연구로 참여한 산림청 주도의 '산지실태조사사업'은 한국의 지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으로 토지이용 효율화의 기초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며, 이 연구결과 일부를 IGC 2016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임업진흥원의 '북한의 토지환경파괴 평가 및 복구방안' 사업은 환경협력 프로그램이 추진하는 아시아 5개 지역의 토지이용의 사결정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복잡계지표시스템 연구회와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의 활발한 운영이다. 복잡계 연구회는 공동 연구자가 진행하는 연구재단의 프로젝트(사회-생태시스템의 생태계서비스와 지역지식: 회복탄력성 연구네트워크 구축)와 함께 2016년 3, 4월 '회복탄력성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 또한 지속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해왔으며, 2016년 지리학회에서 '한국 풍수연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특별 세션을 조직하여 각 분야의 한국 풍수 전문가들을 모아 한국 풍수의 쟁점, 향후 비전과 연구방법 등을 토론하였다. 넷째는 이상의 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사상, 사회 및 공간사상 분야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룰 수 있는 풍수의 현대화,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2016 주요 성과

2016년도 환경협력 프로그램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동아시아 풍수의 미래를 읽다. 아시아의 전통지식, 풍수의 과학화(1)>(지오북)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름으로 출간함으로써 풍수담론을 대중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서적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하여 풍수를 재해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관생태학, 종교학, 역사학, 지리학, 건축학, 지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의 풍수 전반에 관한 담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친환경적 사상인 풍수를 경험과학으로, 전통지식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2016년 12월에 개최한 '풍수현대화를 위한 워크숍'에서는 한국현대풍수 개론서로서 <풍수학 개론> 출간을 기획하였다.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의 이름으로 풍수의 현대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풍수에 대한 대중의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서를 출판하기로 하였다. 한국풍수사, 한국풍수론, 한국풍수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풍수의 역사, 한국 풍수의 주요한 개념들, 나아가 이를 환경, 생태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조명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성공단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개성공단연구지원재단 홍승표 연구담당관



향후 과제 및 비전

2017년도 환경협력 프로그램은 '아시아지속가능토지이용센터'를 설립하여 아시아 차원의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한 연구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된 전문가와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능력을 갖춘 전임연구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아시아연구소의 지원 비중을 줄여나가면서도 독자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환경정보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중요한 생태지역별 사례연구를 지원한다. 계획하고 있는 사례 연구 지역은 중국 화남지방, 몽골, 한반도, 북한 지역, 그리고 메콩강 유역 등지이다. 이를 통해 UNCCD가 주도하는 전세계 토지환경파괴 경제성 평가(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ELD) 연구에 아시아지역 연구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센터 구축의 1차 목표이다.

또 하나의 과제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전통지식 및 경험과학 체계로서 풍수를 재해석하고, 이를 '아시아 공통가치'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국의 풍수 원리를 국제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풍수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개인 연구자 차원의 노력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격차를 해소하고 아시아 공동가치로서의 합의 마련을 위해 제4회 동아시아풍수연구회 풍수 국제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고 있으며, 풍수 연구자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풍수의 현대적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풍수의 현대 지리학적 재해석', '현대 풍수학개론' 등 풍수의 현대화와 일반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풍수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상기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향후 과제이다.

연구 성과 목록

동아시아풍수문화연구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편(2016). <동아시아 풍수의 미래를 읽다. 동아시아의 전통지식, 풍수의 과학화>, 지오북

이도원(2016). <관경(觀境)하다 - 비단길 풍경과 생태학적 상상>, 지오북

허동숙·안유순·박수진(2016). 토지이용 및 토지파복 변화 모델링(LUCC Modeling)에서의 행위자 의사결정 체계 구축방안 - 가리왕산 일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 제50권 제1호>

Virasith Phomsouvanh, Vannaphone Phetpaseuth, Soo Jin Park(2016). Study on Climate Change Impacts on Hydrological Response using a SWAT model in the Xe Bang Fai River Basi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51, No. 6>



사람들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공동연구원: 이도원(환경대학원), 최원석(경상대)

연구보조원: 김충원(서울대), 박지수(서울대), 신혜섭(서울대), 이승진(서울대), 정진숙(서울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2016년 9월 3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현재 3단계 1차년도(7년 차)연구를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이라는 주제 아래 각 분야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연구진들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점연구소는 동아시아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 거점으로서 통합적인 연구 성과를 동아시아 각국과 세계 속에 발신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모색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 주제

2016년도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는 3년간의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중점연구소는 21세기 들어 도래하고 있는 아시아 시대에 걸맞은 아시아 국가, 지역, 행위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식의 생산이 21세기의 주요 과제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아시아 관련 지식 및 콘텐츠, 전문 인력,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에 주목하여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기간 1단계에서는 임현진 교수(아시아연구소 초대 소장)를 연구책임자로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적 특수성에 기초하여 경제공동체 건설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였다. 2단계에는 강명구 교수(현 아시아연구소 소장)가 연구책임자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으로 확대하여 동아시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가능성 및 건설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 1 세부과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협력과 통합'과 제 2 세부과제 '동아시아 사회문화공동체의 협력과 통합'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을 통합적으로 모색하였다.

2016년 9월 3단계에 진입한 중점연구소는 1, 2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가능성 및 건설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자 한다.

2016 주요 성과

중점연구소는 2단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3단계 연구를 준비하며 동아시아의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1 세부과제 연구진은 1단계 사업주제인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의 연장선상에서 실물적 측면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 정도와 경제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와 선진국 간의 거시경제적 관계 분석, 동아시아 재정연구, 탈북자의 시장경제동화과정 연구의 3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제 2 세부과제 연구진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동의 정치경제이념과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며, 동아시아 내부의 사회·문화 협력 및 통합의 다양한 양상을 대중문화, 사회통합, 환경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동아시아 사회 협력과 공동체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 문화산업과 문화소비, 동아시아의 환경가치평가와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두 세부과제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경제공동체를 넘어 사회·문화공동체를 포괄하는 입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각 세부과제의 연구진은 각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저서, 논문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학술행사 개최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경제사회에 대한 지식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학생, 대중과 공유하였다. 특별강연 〈국제기구 전문가가 말하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시리즈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의 Christopher Davis 교수 초청 세미나 〈Lessons from transition experiences in FSU and Europe for North Korea〉와 Tokyo U. of the Arts 공동개최 워크숍 〈SNU and TUA Workshop〉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연구진들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향후 과제 및 비전

중점연구소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어 동아시아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1 세부과제 ‘경제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진은 동아시아 지역 내 물가 안정 정책과 내생성에 관한 연구, 각국 복지재정의 현실적 규모 검토, 탈북자의 시장경제 동화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세부과제 ‘사회문화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진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정치경제이념과 발전모델을 모색하며, 사회·문화 협력 및 통합의 양상에 대하여 대중문화, 사회통합, 환경협력,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동아시아 각국과 세계 속에 발신하여 ‘아시아 연구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아시아연구소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 목록

- 정근식·김민환(2016).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진인진
- 정근식·신혜선(2016). <다렌 연구-초국적 이동과 지배, 교류의 유산을 찾아서>. 진인진
- 김성규(2016). 사회자본과 개도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성: 미얀마 농촌종합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3집 제1호
- 김성규·김주희(2016). 국제개발협력과 나이지리아 국가발전전략: 유가하락과 경제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8집 제4호
- 이철인(2016).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9집 제4호
- 이철인(2016). 환경세와 환경지출의 최적조항. **계량경제학보** 제27집 제4호
- 정근식·김 란(2016). 두 갈래길, 중국지원군 포로의 생애사: 장저쓰와 류취지엔의 구술사에 기초하여. **한국구술사연구** 제7집 제1호
- 정근식·오준병(2016). 동아시아에서의 탈냉전과 전장 관광의 지속가능성 - 진면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6집 제1호
- Soyoung Kim(2016). What is Learned from a Currency Crisis Fear of Floating or Hollow Middle Identifying Exchange Rate.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Vol. 12, No. 4
- Yoomi Kim, Katsuya Tanaka, Shunji Matsuoka(2017).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the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Global Environmental Politics** Vol. 17, No. 1



Christopher Davis(Oxford U.) 교수 초청 세미나
(Lessons from Transition Experiences in FSU and Europe for North Korea)



특별강연 <국제기구 전문가가 말하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 -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2016. 3. 29)

사람들



연구책임자: 강명규(언론정보학과, 아시아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김병연(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이철인(경제학부), 임혜란(정치외교학부), 정근식(사회학과)

전임연구원: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유미(아시아연구소), 김정민(아시아연구소), 신혜선(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다무리 후미노리(서울대), 한승목(서울대)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냉전적 발전주의 도시화'라는 틀에서 동아시아 도시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연구의 새로운 인식론' 개발을 목표로 한다. 현재 동아시아 도시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첫째, 1950년대 이후 냉전의 지정-지경학적 상황과 1950~80년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팽배했던 발전주의 국가개발이 동아시아 도시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로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지정-지경학적 조건 속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어떻게 발전주의 도시화의 유산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을 변화시켰는지 분석한다.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동아시아 도시성의 모색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

연구 주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북한에서 이루어진 발전주의 도시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1) 압축적 도시화, 2) 위험경관, 3) 예외 공간이란 3가지 차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첫째, 압축적 도시화를 연구하는 압축도시팀은 한국의 도시화를 강남 만들기와 강남 따라하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주요 도시의 도시화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위험경관팀은 위험을 둘러싼 이해관계, 인식, 실천적 행위의 사회-공간적 차원을 강조하는 위험경관(risk scape)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전주의 도시화가 어떻게 위험경관의 등장을 초래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소비, 관리와 관련한 위험경관의 생산 과정을 사회-공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셋째, 예외공간팀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경제특구를 연구하였다. 특히 특구와 같은 예외적 공간의 생산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발전주의 시기, 신자유주의 시기, 체제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기와 국가에 따라 차별적이지만 일관되게 활용하는 공간적 통치술임을 밝히려 했다.

2016 주요 성과

압축도시팀은 핵심 연구 주제인 '강남 만들기'와 '강남 따라하기'와 관련하여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특집호를 게재하였다. 8월에는 대만국립대 쉬진위 교수를, 11월에는 국내 강남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한편, 2015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 및 행사도 지속하였다. 공동연구원인 런던 정경대 신현방 교수의 <Planetary Gentrification>(Polity, 2016) 단행본 출간을 비롯하여 연구단의 대표적 행사인 '도시정책포럼'을 통하여 8월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안 논의를 모색하고자 여름방학 기간에는 도시 공유재(urban commons)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위험경관팀은 연구팀의 핵심 개념인 위험경관을 동아시아 맥락에서 개념화한 이론 논문을 <대한지리학회지>에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에서의 원전정책과 이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 사례 연구들로 구성된 특집호를 기획하여 <환경사회학회지>의 2017년 상반기 호에 게재하는 등 위험경관 연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학술지인 <Erdkunde>에서 기획된 위험경관 특집호에는 공동연구원인 한신대 이상현 교수와 선임연구원인 황진태 박사가 공동 저술한 논문이 선정되었다.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적 에너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5월에는 에너지 전환과 분권을 주제로 도시 정책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SSK 동아시아도시연구단 - Urban Research Plaza 간담회(2017. 2. 14)

예외공간팀은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경제특구를 다룬 총 4편의 논문들로 구성된 특집호를 <공간과 사회>에 게재했으며, 3월에는 '동아시아에서 예외적 영토공간 형성의 역사지리'를 주제로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본 연구단의 공동연구원이자 아시아연구소의 방문교수로 1년간 체류했던 대만국립대 쉬진위 교수는 국내학술지에 대만의 예외공간을 사례로 한 논문을 출간하고, 여러 학술행사에서 연구발표를 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여줬다. 더불어 그는 또 다른 해외공동연구원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의 짐 글래스만 교수, 공동연구원인 경남대 김동원 교수와 함께 한국과 대만의 산업단지 형성을 비교연구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Environment and Planning A>에 게재했다.



향후 과제 및 비전

동아시아 도시연구단은 2016년 9월 한국연구재단의 SSK사업의 중형3단계에 진입했으며, 2017년 9월 대형단계 진입을 목표로 동아시아 도시연구의 중심인 'SSK 동아시아 도시연구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도시연구센터는 동아시아의 경험에 기반을 둔 새로운 도시이론을 모색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GIS(지리정보시스템),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증적인 조사역량을 갖춘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도시연구의 허브'로서 성장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동아시아 도시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싱크탱크로 자리 잡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 또한 병행할 것이다.

연구 성과 목록

김은혜(2016).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도심화귀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사회학** 제17집 제3호
 김은혜·박배균(2016).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스케일 재편과 특구 전략. **공간과 사회** 제26집 제2호
 김은혜·박배균(2016). 일본원자력복합체와 토건국가. **ECO** 제20집 제2호
 신현방(2016). 중국 개혁기 자본의 도시, 강탈의 도시로의 이행: 광주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제116집
 쉬진위(2016). 양인은 화해할 수 있을까? 중국몽(中國夢)과 대만 발전의 갈등과 대화. **역사비평** 제114집
 쉬진위·박배균(2016). 타협과 실험의 공간으로서의 특구: 대만 가오슝가공수출구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집 제2호
 이상현(2016). 위험경관의 생산과 민주주의의 진화: 삼척시 주민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96집
 이승욱(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집 제1호
 이승욱(2016).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공간과 사회** 제26집 제2호
 장세훈(2016). 광장에서 공원으로: 5.16광장 변천의 공간사회학적 접근. **공간과 사회** 제26집 제2호

조성찬(2016). 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 **역사비평** 제116집

조성찬(2016).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반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공간과 사회** 제26집 제2호

지주형(2016).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집 제2호

황진태(2016). 동아시아 맥락에서 바라본 한국에서의 위험경관의 생산. **대한지리학회지** 제51집 제2호

황진태(2016). 발전주의 도시 매트릭스의 구축: 부산의 강남 따라하기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집 제2호

황진태(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집 제2호

Loretta Lees, Hyun Bang Shin and Ernesto López-Morales(2016). **〈Planetary Gentrification〉**. John Wiley & Sons/Malden

Jamie Doucette and Anders Riel Muller(2016). Exporting the Saemaul spirit: South Korea's Knowledge Sharing Program and The 'Rendering Technical' of Korean Development. **Geoforum** Vol. 75

Jinn-yuh Hsu, Dong-wan Gimm and Jim Glassman(2016). A Tale of Two Industrial Zones: A Geopolitical Economy of Differential Development in Ulsan, South Korea and Kaohsiung, Taiwan. **Environment and Planning A**

Jin-Tae Hwang(2016). Changing South Korean Water Policy after Political and Economic Liberal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7, No. 2

Jin-Tae Hwang(2016). The Chun Doo-Hwan Authoritarian Regime's Securitisation of Water: the Case of the Peace Dam.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Vol. 132, No. 3-4

Jin-Tae Hwang, Sang-Hun Lee and Detlef Mueller-Mahn(2016). Multi-scalar Practices of the Korean State in Global Climate Politics: the Case of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Antipode**

Hyung-joon Park and Jamie Doucette(2016). Financialization or capitalization? Debating Capitalist Power in South Korea in the Context of Neoliberal Globalization. **Capital and Class** Vol. 40, No. 3

Hyun Bang Shin(2016). Economic transition and speculative urbanisation in China: Gentrification versus Dispossession. **Urban Studies** Vol. 53, No. 3

사람들



디렉터: 박배균 교수(지리교육과)

공동연구원: 김동원(경남대), 김은혜(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신현방(런던정경대), 이상현(한신대),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주형(경남대), 제이미 두셋(맨체스터대), 짐 글래스만(브리티시컬럼비아대), 쉬진위(대만국립대)

전임연구원: 심한별(아시아연구소), 황진태(아시아연구소)

연구보조원: 김남영(서울대), 박지현(서울대), 임도연(서울대), 전원근(서울대), 장진범(서울대), 최희진(서울대), 한윤애(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료의 수집과 보급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적 데이터 아카이브이다. KOSSDA는 연구기관들과 개인 연구자들이 산출하는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DB로 구축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장자료의 보급과 이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학술행사와 선진적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DB 구축 및 지표 개발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조사연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KOSSDA는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협력체인 NASSDA(Network of Asi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 활동의 본격화를 통해 아시아 연구 데이터 허브로 발전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학 연구기반 확충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아시아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구축

연구 주제

2016년도 KOSSDA는 ‘사회과학 연구기반 확충과 아시아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자료 수집과 보급, 교육, 연구, 국제교류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 추진하였다. 전국의 주요 자료산출 기관들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고,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용 및 분석 방법을 공유하는 데이터 페어와 자료를 활용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소장자료의 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아울러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자료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선진국 아카이브들에서 시행하는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개설하였다.

KOSSDA는 DB 구축 및 지표 개발 관련 연구 사업도 수행하였다.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사회과학 분야 DB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이고,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6년도 보고서 발간 사업과 ‘국가주요지표’ 개편 사업을 완수하였다. 아시아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아시아 7개국이 공동 수행하는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 조사연구와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협력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2016 주요 성과

KOSSDA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DB 구축이다. 2016년 KOSSDA는 조사자료 191건을 수집하고, 이 중 72건을 DB로 구축하였다. 2017년 2월 현재 조사자료 2,251건과 질적자료 211건의 DB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 수집 및 DB 구축과 함께 KOSSDA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구축된 DB가 잘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KOSSDA는 데이터 페어와 논문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데이터 페어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패널데이터’를 주제로 각각 실시되었다. 첫 번째 데이터 페어는 KOSSD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의 소개와 분석사례 발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데이터 페어는 한국 패널데이터 현황 개관에 이은 주요 패널데

이터의 연구동향 발표와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의 경험연구 역량을 함양하고 KOSSDA 소장자료의 활용을 장려하고자 시행한 논문경연대회에는 KOSSDA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된 여러 편의 경험연구 논문들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분석기법이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은 세 편의 논문이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KOSSDA는 미국 미시간대 ICPSR의 ‘Summer Program in Quantitative Methods of Social Research’를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한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KOSSDA 방법론 교육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동·하계 워크숍과 이론 강의 중심의 춘·추계 단기강좌로 나누어 연간 네 차례에 걸쳐 개설된다. KOSSDA는 2016년에 춘계 5강좌, 하계 9강좌, 추계 4강좌, 동계(2017년) 7강좌 등 총 25개 강좌를 개설하였고, 수강자는 연인원 800명에 이른다. 2016년에는 강북지역의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도 강좌를 개설하였다.

KOSSDA는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사회과학 분야 DB 구축 사업을 2년간(2016년 4월~2018년 3월)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조성사업 사회과학 분야 지원 과제들로부터 산출된 연구 성과물을 동 재단의 기초학문자료센터 DB로 구축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아 진행된다. 아울러 통계청의 연차적 통계 서술형 간행물인 <한국의 사회동향> 2016년도 보고서 발간 사업과 한국의 대표적 국가지표인 ‘국가주요지표’ 개편 사업도 대규모 연구진을 구성하여 완수하였다. 일본 센슈대 ‘사회적 웰빙 센터’가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사회적 웰빙 비교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였고, 한국의 KOSSDA를 비롯하여 일본 동경대 SSJDA, 중국 인민대 CNSDA, 대만 중앙연구원 SRDA 등 4개국 대표 아카이브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 데이터 아카이브 협력체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NASSDA의 창설과 활동 방향에 합의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향후 과제 및 비전

KOSSDA 발전 비전의 키워드는 내실화와 국제화이다. KOSSDA는 지난 10년간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아시아연구소 이관 재출범을 계기로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자 한다. 자료의 질과 활용 가치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가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며, 자료의 활용과 보급을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이 같은 내실화 노력을 통해 KOSSDA는 미국의 ICPSR이나 영국의 UKDA, 독일의 GESIS와 같은 선진국 수준의 데이터 아카이브로 발전하고자 한다.

KOSSDA는 아시아연구소의 연구 역량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아시아 연구 데이터 허브로 발전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아시아연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자료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웰빙과 사회의 질 및 사회통합 비교연구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아시아 아카이브 협력체인 NASSDA 참여를 통해 아시아 데이터의 공유와 보급에 힘쓸 것이다.



제1회 KOSSDA 데이터 페어: 홍기현 학장 축사(2016. 9. 30)

2016 KOSSDA 주요 업로드 자료

자료명	기탁기관
한국종합사회조사(2014)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통일익식조사(2014)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2012,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2013, 2014, 2015)	한국방정환재단
식품소비행태조사(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로환경조사(201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 실태조사(2012)	한국행정연구원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지역사회 영향에 관한 조사(2008)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뉴스 이용행태 및 미디어 영향력 조사(20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서베이(2014)	서울시
소방공무원 안전 및 보건 실태조사(2015)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2015)	동아시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총선대선패널조사(2012)	아산정책연구원
국민독서실태조사(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성과 목록

이재열 외(2016).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청 통계개발원

이재열 외(2016). <2016년 국가주요지표 개편연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사람들



디렉터: 이재열(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석호(사회학과), 박원호(정치외교학부)

연구원: 고지영(방법론교육), 김대훈(자료개발 총괄), 김혜진(질적자료), 이상운(통계자료), 진윤아(방법론교육 총괄), 한아름(문헌자료), 허혜옥(조사자료)

올해의 포커스

2016년은 아시아연구소가 다양한 기획 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실천적 활용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힘쓴 한 해였다. <올해의 포커스>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조명해 볼 만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시아 연구 학자들, 서울에서 아시아를 논하다

아시아연구소는 미국의 민간 학술단체인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SSRC), 예일대, 싱가포르국립대, 홍콩대 및 독일 괴팅겐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 및 아시아 연구기관들과 함께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서울대에서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전문 연구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국제회의는 SSRC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InterAsia Program의 하나로, 2008년 두바이에서의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홍콩, 이스탄불을 거쳐 서울에서 5번째로 개최된 행사였다.

이번 국제회의는 모두에게 공개된 전체 세션(Plenary Session)과 비공개로 진행된 10개의 주제별 워크숍으로 구성되었다. 아시아연구소에서 마련한 첫날 전체 세션에서는 토론토대의 Lisa Yoneyama 교수가 '국민사와 냉전: 범아시아적, 범태평양적 비평'을 주제로 키노트 연설을 진행하였다. (아시아리뷰 6권 1호 수록) 오후의 두 번째 전체 세션에서는 두바이와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워크숍의 디렉터들이 워크숍 이후 자신들이 다룬 연구주제의 발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10개의 주제별 워크숍에서는 국제공모를 거친 선발을 통해 주제별로 15명 내외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4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 날에는 10개의 주제별 워크숍 디렉터들이 4일간 진행된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 발표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참여자들 간 연구와 관련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6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 이번 행사에는 교내외에서 1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고, 아시아연구소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백현지 연구원에 의해 기획, 준비된 점심 및 저녁 행사들은 200여 명에 이르는 국내외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17년부터 InterAsia Program의 파트너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국제아시아연구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 InterAsia Program 파트너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공동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갈 것이다.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2016. 4. 27 ~ 30)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2016년 10월 21일 아시아연구소에서 아시아 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를 개최하였다.

동아시아는 20세기 후반에 지구화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물결에 휩싸여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본주의 발전과 아시아 문화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에 심각한 도전장을 제기하게 되었다. 본 국제학술회의는 양중회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의 개회사와 임현진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어 경제와 문화와의 관계, 특히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자본주의와 문화가 서로 배태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는 목표를 갖고 진행되었다.

신익항 교수(사우스캐롤라이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은 '국제화 시대의 동아시아에서의 문화, 정치 그리고 시장'을 주제로 김명수 교수(한양대), Hsin-Huang Michael Hsiao 타이완 중앙연구원, Cheri Shun-ching Chan(홍콩대)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제2세션은 '신자유주의 동아시아의 문화적 갈등과 문화 산업'이라는 주제로 Alvin Y. So 교수(홍콩과기대), Yoshitaka Mouri 교수(도쿄예술대), 그리고 본 워크숍의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중회 교수(성균관대 명예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제3세션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 정치와 온라인 문화'를 주제로 Koichi Iwabuchi 교수(모나슈대), Goh Beng Lan 교수(싱가포르국립대), 그리고 최항섭 교수(국민대)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본 국제학술회의는 총 20여 명의 동아시아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본 워크숍의 결과는 단행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 현장(2016. 10. 21)

아시아의 가족 – SNU Family Index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연구

가족의 형태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인 변화 속에 있다. 근대 이후 우리의 인식을 지배해 온 핵가족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그 수명을 다하였다. 하지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대체되고 변화하는 과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국가마다 정부의 역할이나 사회 제도의 배열 등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의 가족’ 연구는 이러한 가족의 경계와 개념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팀은 한국, 일본, 중국, 스웨덴, 미국, 이탈리아 등 세계 6개국 국민들 5000여명을 대상으로 누구를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지, 각 구성원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동거, 동성부부 등 새로운 가족에 대한 수용도는 어떠한지,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사회 제도와 가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설문 항목을 포함하였고, ‘가족’이라고 답변한 구성원과의 관계 양상을 경제적 지지와 정서적지지, 일상적지지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홍백의 교수(사회복지학과)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의 은석, 안승재 두 연구원과 함께 1년 9개월(2014년 7월~2016년 2월)간 진행되었다. 연구기간 동안 2015년 6월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열린 East Asian Social Policy Conference 등 해외 학회에 2회, 국내 발표회에 2회를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진의 데이터 클리닝 및 비교 연구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SNU Family Index		
가족 범위	가족인식	가족 및 정부의 역할
- 가족으로 인식하는 대상 - 유대관계 - 지지정도 등	- 결혼관 - 성별역할 - 가족 부양 등	보육, 교육, 취업, 노후 소득, 노인돌봄, 의료, 장애인 돌봄, 주거, 최소 생활 보장 등 가족 책임성 및 정부 책임성 측정
조사대상: 6개국 20~59세 성인 약 5,000여명 (한국, 중국, 일본, 미국 1,000명, 스웨덴 575명, 이탈리아 600명)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을 통한 조사		

SNU Family Index 조사 내용 및 조사 대상

실크로드의 진주, 우즈베키스탄을 만나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는 2016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연구소에서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국내에 소개하는 ‘Asian Cultural Awareness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문화주간이 진행된 지난 2016년과 2017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그리고 이 지역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다. 2016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그 중앙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으로 독립한 그 다음 해인 1992년에 대한민국은 새로 독립한 이들 국가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17년에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번 문화주간은 대중에게 비교적 익숙치 않은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소개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반세기 간 협력관계를 기념하는 축하의 장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었다.

문화주간 첫날에는 보티르존 아사도프(H. E. Botirjon ASADOV)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의 강연과 우즈베키스탄과 관련 있는 학계, 경제계, 외교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교류의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두 나라 연주자들의 열띤 연주를 감상하고,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둘째 날에는 실크로드 사진 설명회와 우즈베키스탄 영화제, 셋째 날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학자들을 초청하여 실크로드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에 대한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 날에는 우즈베키스탄 사회, 문화, 교육을 주제로 학술제를 가졌다. 상설 프로그램으로 사진전과 동물전시회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고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유적지인 사마르칸트와 레기스탄을 배경으로 즉석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은 현대 우즈베키스탄 형성의 문화적 토대들을 역사, 교육, 종교, 생활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을 통해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으로 체험하고, 학문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입체적 경험의 기회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2016. 10. 24 ~ 28)

연구연수생, 아시아연구소에서 날개를 달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은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아시아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5기, 6기 연구연수생들이 과정을 수료하면서 관련 분야의 학과로 다수의 대학원생을 배출하는 동시에, 아시아 연구 및 사업 분야로의 역량 있는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아시아학 개론 수업, 답사 프로그램, 자치 세미나, 학술 행사 참관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아시아학 개론 수업은 아시아에 관한 다양한 지역연구와 주제들을 소개하는 수업으로 아시아연구소의 지역연구 센터장 및 주제연구 프로그램 디렉터 교수들이 10회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새롭고 심화된 아시아 연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시아학 개론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연수생들은 자치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도시·환경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를 병행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구소 내에서 수업을 듣는 것 외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답사 프로그램은 필드에서 직접 느끼는 연구자로서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답사 프로그램은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 페스티벌, 영화제 답사, 박물관 답사, 역사 유적지 답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2016년도 하반기에 활동한 6기 연구연수생들은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 행사를 위해 함께 진행을 도맡으면서 아시아 문화를 알리는 서포터즈가 되기도 하였다. 문화주간 기간에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 특별 초청 강연, 학술 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대사 초청강연은 물론 여러 전문가의 학술행사와 질의응답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교류를 해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먼 나라로만 여겼던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6기 아시아연구소 연구연수생

아시아연구소의 ODA, 사회공헌의 첫걸음을 떼다

2016년도 아시아연구소의 ODA 사업은 크게 국제개발협력 관련 연구,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강연회 그리고 개도국 글로벌공헌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제기구 전문가 초청강연회는 UN 기구, ADB 등 국제개발협력관련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해당 국제기구의 역할과 전략, 학생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강연자는 정홍상(前 국제기후기금(GCF) 유치위원장), 정래권(前 UN 사무총장 기후변화 수석 자문관), 김길홍(ADB 국장) 등이었으며, 서울대 윤순진, 한무영, 홍종호 교수, 김영현(기재부 팀장), 박광석(환경부 국장), 이규희(외교부 과장) 등 학계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 차례 강연 모두 학생과 일반 참가자가 아시아연구소 영원을 좌석을 메울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또한 대표적 ODA 사업 중 하나로 ‘아시아연구소 필리핀 글로벌사회공헌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아시아연구소는 방학 중 서울대 학부, 대학원생들을 모집해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국제협력단(KOICA) 마닐라사무소 등 필리핀 마닐라 소재 개발협력 국제기구와 불라칸주 타워빌(Bulacan Townerville) 집단 이주지역 방문, 활동을 수행했다. 사업의 취지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개도국 빈곤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을 탐색하고자 함이었다. 하계 방학 중에는 사회대, 보건대 뿐만 아니라 미술대 학생까지 참여해 해당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지역 보건소 벽화 작업, 지역 주민에 의해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된 봉제공장 생산품의 디자인 작업 등을 수행했다. 특히 동계 방학 기간에는 불라칸 타워빌 이주지역 가정에 직접 머물면서 생활 시간 조사와 보건교육 사업을 수행했으며, 아울러 지역 사회적 기업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이 지역의 공공 보건교육 개선 및 빈곤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방안 및 연구조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향후 아시아연구소 ODA 기획팀은 단순한 ‘봉사활동’ 차원이 아닌 현장 중심의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회의 빈곤 문제와 커뮤니티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인식할 수 있는 개발협력 심포지엄과 개도국 커뮤니티 조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연구소 필리핀 글로벌사회공헌활동(필리핀 불라칸 지역)

학술행사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주제에 대한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강연, 초청 강연, 워크숍, 콜로키움, 세미나, 국내외 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의 기획 및 주최를 통해 우수한 아시아 연구 성과를 생산 및 공유하는 동시에 국내외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 학술행사 인명 표기는 직함을 제외한 성명, 소속을 기재.

서울대학교 교수는 학과명을 표기하고, 아시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아시아연구소로 표기.





학술행사 일람

3/1
중점연구소 / Kyushu U.
〈국제학술회의〉 Redesigning Asia Pacific future Studies at Kyushu University – Cultural Differences: Performances of Japanese and Korean firms in China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유미(아시아연구소)
김종철(아시아연구소)
Yasuhisa Abe(Kyushu U.)
Xujia Lin(Kyushu U.)
Toshiyuki Kabu(Kyushu Economic Research Center)

3/9
동남아시아센터 / 녹색ODA센터
〈국내학술회의〉 행복한 SD in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물 문제와 개발협력
최동진(국토환경연구소)
이경목(인류학과)
엄은희(아시아연구소)

3/10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유라시아 지정학의 함의

정태인(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

3/11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글로벌기움〉 (9) 동아시아에서 예외적 영토 공간 형성의 역사지리학
박준형(인하대)
이승욱(카이스트)

3/16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세미나〉 (19) China's Responses to the US Rebalance in Asia

Ren Xiao(Fudan U.)

3/16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한국정치연구소
〈특별강연〉 지역기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꿈, 돈, 그리고 재미를 중심으로
공석기(아시아연구소)

3/17
환경협력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제4회 회복탄력성 국제세미나 "Knowledge and Learning for Resilience of Social-Ecological Systems"
Marianne E. Krasny(Cornell U.)
이도원(환경대학원)
김고운(환경대학원)
이재영(공주대)

3/23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한국정치연구소
〈특별강연〉 마을학개론: 대학-지역 연계 생활정치
이태동(연세대)
3/28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Southeast Asia: Riding the e-Commerce Wave
고영경(UNITAR Int'l U.)

3/29
중점연구소
〈특별강연시리즈〉 (1) 국제기구 전문가가 말하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 -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정홍상(기상청 / 전 녹색기후기금)

3/31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세미나〉 (20)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 출간 기념 세미나
김현준(고려대)
박종희(정치외교학부)
안두환(정치외교학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4/7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Intellectual Creativity and Modalities of Academic Collaboration

David SZANTON(UC Berkeley; The Ethnic Arts Foundation)

4/12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법제분야 교류와 ODA: 현재와 미래
김봉철(한국외대)

4/12
환경협력프로그램
〈국제학술회의〉 제5회 회복탄력성 국제세미나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the Assessment of Regional Resilience"
Graeme S. Cumming(James Cook U.)
강신규(강원대)
강호정(연세대)
정민건(연세대)
안유순(지리학과)
박수진(지리학과)
김고운(환경대학원)
이도원(환경대학원)
강완모(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국립산림과학원)

4/14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세미나〉 (21) China's Maritime Administration and Challenges for the US
Chisako Masuo(Kyushu U.)

4/1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아시아연구소 연구자료 아카이빙 방법 워크숍
김대훈(아시아연구소)
김혜진(아시아연구소)
허혜옥(아시아연구소)

4/19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와 진출 확대 방안
송유황(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27-30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한국정치연구소
〈국제학술회의〉 "The Social Economy and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s in Asia"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이일청(UNRISD)
Akihiro Ogawa(U. of Melbourne)
Bipasha Baruah(Western U.)
미우라 히로키(한국정치연구소)
Margurite Mendell(Concordia U.)
Masanari Sakurai(Ritsumeikan U.)

4/27-30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강명구(SNUAC 소장)
홍기현(사회과학대학 학장)
박명규(사회학과)
박태균(국제대학원)
Lisa Yoneyama(Toronto U.)
Juliette Chung(Nat'l Tsing Hua U.)
Angela Leung(U. of Hong Kong)
Helen Siu(Yale U.)
K. Sivaramakrishnan(Yale U.)
Prasenjit Duara(Duke U.)
Srirupa Roy(U. of Goettingen)
Engseng Ho(Duke U.)
Seteney Shami(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evin Hewison(U.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Arne Kalleberg(U.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Timothy Harper(Cambridge U.)

총 200여명의 참석자

5/10
대중문화프로그램
〈글로벌기움〉 Growing Acceleration Effects on Individual in Contemporary World
Claudine Harochel(France EHESS/CNRS)

5/10
아시아연구소 -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강연시리즈〉 (1) 네가지 주제로 보는 현대 서아시아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5/11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한국정치연구소
〈특별강연〉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경제
홍기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5/11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도시정책포럼〉(2) 지역 분권과 에너지 전환: 발전주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넘어서
박배균(지리교육과)
이상현(한신대)
여형범(충남연구원)
한재각(녹색당)
김동주(에너지민주주의센터)
김현우(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황리랑(대만국립대)

5/12
아시아연구소 -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강연시리즈〉(2) 네가지 주제로 보는 현대 서아시아



염익란(단국대)

5/13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China and Japan: Assembling Decentralized Regionalism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ianluca Bonanno(Kyoto U.)

5/17
아시아연구소 -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강연시리즈〉(3) 네가지 주제로 보는 현대 서아시아



인남식(국립외교원)

5/18
마-중관계 프로그램
〈마-중관계세미나〉(22) TPP와 미국의 식량전략



徐振偉(Nankai U.)

5/18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한국정치연구소
〈특별강연〉 Genealogy of Governance
Mark Bevir(UC Berkely/UN U.)

5/19
아시아연구소-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강연시리즈〉(4) 네가지 주제로 보는 현대 서아시아



박현도(명지대)

5/21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중앙아시아와 이슬람 I
신법식(정치외교학부)
김태연(연계전공 러시아학)
이선우(정치외교학부)
조영관(수출입은행)

5/24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The Political Life and Revolutionary Thought of Frantz Fanon



Christopher J. Lee(Wits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WISER); U. of the Witwatersrand)

5/24
중점연구소
〈특별강연시리즈〉(2) 국제기구 전문가가 말하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 - SDG의 의미와 전략



정래권(전 UN사무총장 기후변화수석자문관)

5/26-27
동남아시아센터 / KOTRA 아카데미
〈워크숍〉 제5기 동남아시아전문가 심화와 정-인도네시아편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조윤미(비교문화연구소)
김형준(강원대)
이지혁(아시아연구소)
채경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정환(전 매경신문)
송유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0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IPR, Trade, and Standardization Workshop
Edwin Lai(HKUST)
Olena Ivus(Queen's U.)
Yuka Ohno(Hokkaido U.)
박지형(경제학부)
조희경(홍익대)
라미령(아시아연구소)
김동휴(연세대)

6/1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연합 학술회의



김종철(아시아연구소)
정재호(정치외교학부)
황진태(아시아연구소)
박배균(지리교육과)
엄은희(아시아연구소)
김은혜(아시아연구소)
김봉근(경제학부)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성규(아시아연구소)
미우라 히로키(한국정치연구소)

6/1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한국정치연구소
〈특별강연〉 협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장소기반, 관계지향, 시민주도
유창복(서울시청)

6/1
마-중관계 프로그램
〈워크숍〉 SNU-Beida Workshop on Northeast Asian Security

김현준(고려대)
안두환(정치외교학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및 중국 외교부 참사관

6/2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1) The Cultural Politics of Women's Gyoyang(教養), 1930s-1940s
Ahreum Kim(U. of Tokyo)

6/2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전통 생활문화
강정원(인류학과)
고가영(아시아연구소)
남영호(신한대)
사르다나 루미안체바(인류학과)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이수유(인류학과)
정형호(전북대)
차리(인류학과)
최소영(국립타슈켄트동방대)
최아영(아시아연구소)

6/3
마-중관계 프로그램 / 통일평화연구원
〈워크숍〉 한-중 전문가 좌담회



장청민(베이징대)
추수룡(청화대)
궁커위(상해국제문제연구원)
동상룡(중국사회과학원)
리난(중국사회과학원)
청샤오해(인민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최우선(국립외교원)
이창형(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흥호(한양대 국제대학원 원장)
김한권(국립외교원)
김병연(경제학부)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6/4
중앙아시아센터
〈콜로키움〉 중앙아시아와 이슬람 II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양승조(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6/9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2) Comparing Welfare Regimes across World Regions: Care Arrangements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Peter Abrahamson(U. of Copenhagen)

6/16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3) When the Spirit Becomes Technique: Saemaul Knowledge Sharing and Export of the Korean Development Experience
Jamie Doucette(U. of Manchester)
A Fieldwork Report on South Korea's Back-to-the-Farm, Back-to-the-Village Phenomenon: Seeking an Alternative Life to the Urban Mainstream
Elise Youn(UC Berkeley)

6/22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What's next for Asian Studies in Asia?



Kuan-Hsing Chen(Chiao Tung U.)

6/24
환경협력 프로그램 / 2016지리학대회 한국 풍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국내학술회의〉 특별세션: 한국 풍수 연구의 좌표와 과제, 쟁점, 그리고 향후의 비전
이도원(환경대학원)
천인호(동방문화대)
김병우(대구한외대)
권선정(서원대)
한종구(청운대)
장미아(건국대)
신준환(동양대)
박수진(지리학과)

6/25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SDGs를 위한 현지 커뮤니티의 역할
이경민(의과대학 신경과)
Cecilia N. Gascon(Bulacan State U.)
조성일(보건대학원)
Nemuel Fajutagana(국립 보건전문인력 교육센터, 필리핀)
이경수(영남대)
Loida O. Crespo (Bulacan State U.)
이명희(함께일하는재단)
이철웅(사단법인 캠프)
공석기(아시아연구소)

7/1
중점연구소
〈특별강연시리즈〉 (3) 국제기구 전문가가 말하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 - 아시아의 개발과제와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



김길홍(아시아개발은행)

7/5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우즈베키스탄과 상하이협력기구: 평화, 안정, 성장을 위한 협력
Bakhtier IBRAGIMOV(주한우즈베키스탄 부대사)

7/6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워크숍〉 Korean Developmentalism: Korea as Method
송제숙(토론토대)
조문영(연세대)
박서영(Scripps College)
오유흥(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손정원(Univ. College London)
앨리스 김(규장각)
박배균(지리교육과)
최영진(지리교육과)
홍덕화(사회학과)
한윤애(아시아연구소)

7/7
아시아연구소
〈콜로키움〉 K-Pop의 글로벌 경제
홍석경(언론정보학과)
Patrick Messertlin(Sciences-Po)
Jimmy Parc(Sciences-Po)

8/4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도시정책포럼〉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박배균(지리교육과)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박성규(한국부동산연구원)

8/12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콜로키움〉 (10) Imagining Sweet Home: Urban Consciousness of Middle Class and Housing Location Choice in Taipei
Huang, Liling(대만국립대)

8/1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Demand-led Capitalism: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Manufacturers
Gary Hamilton(U. of Washington)

8/17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세미나〉 도시공유재
박배균(지리교육과)
황진태(아시아연구소)

8/29
미-중관계 프로그램
〈워크숍〉 SNU-CASS Workshop on International Politics of Peaceful Power Transition



김현준(고려대)
안두환(정치외교학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교수 및 연구원들

8/30
미-중관계 프로그램
〈워크숍〉 SNU-Beida Workshop on International Politics of Peaceful Power Transition
김현준(고려대)
안두환(정치외교학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및 연구원들

9/5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Contemporary Problems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an Islamic Finance Help?



Obiyathulla Ismath Bacha(Int'l Centre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

9/5
시민사회프로그램 / 환경운동연합
〈특별강연〉 Burning Paradise: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사례
Deborah Lapidus(Waxman Strategies)
Bustar Maitar(Waxman Strategies)

9/7
중점연구소 / Tokyo U. of the Arts
〈워크숍〉 SNU and TUA Workshop



박배균(지리교육과)
허보윤(디자인학부)
김승근(국악과)
배수열(D&Department in Seoul)
유미영(D&Department in Seoul)
Sumiko Kumakura(Tokyo U. of the Arts)
Yoshitaka Mouri(Tokyo U. of the Arts)

9/8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 (1) 2016년도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이종구(정치외교학부)
김정민(국제대학원)
오승희(이화여대)

9/20
아시아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2) 2016년도 아시아연
구소 브라운 백 세미나
지은숙(인류학과)
김선(보건대학원)

9/22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기획워크
숍 시리즈 I : '한국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활동의 약한 고리'
공석기(아시아연구소)

9/22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세미나〉(23) Sino-US Relations,
the Pivot 2.0, and the Korean Peninsula
Gilbert Rozman(Princeton U.)

9/22-10/27
동남아시아센터 / 한-아세안센터
〈특별강연〉 기획의 땅, 아세안 경제를 보다-
아세안 진출 길라잡이: K-뷰티, 패션, 식품 산
업을 중심으로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전진호(아모레퍼시픽)
김석수(제이엔케이인터내셔널)
이진선(한세실업)
장재남(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김훈(BBQ Genesis)

9/27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미남까바우 음식문화 네트워크
김이재(경인교대)

9/30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제1회 데이터 페어: 한국종합사회
조사(KGSS)



김지범(성균관대)
김솔이(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김석호(사회학과)
신인철(성균관대)

10/6
중앙아시아센터
〈국내학술회의〉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
적 경험과 현재적 선택



양승조(아시아연구소)
고가영(아시아연구소)
김태연(연계전공 러시아학)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이선우(정치외교학부)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10/12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Anti-Debt: Islam and the
Critique of Finance Capitalism
Daromir Rudnycky(U. of Victoria)

10/14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워크숍〉 Economic Theory Workshop



Jimmy Chan(Fudan U.)
David Miller(U. of Michigan)
Daisuke Oyama(U. of Tokyo)
황성하(서강대)
Duoze Li(Chinese U. of Hong Kong)
김진우(경제학부)

10/15
중앙아시아센터
〈특별강연〉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恨), 그리
고 김치문화
백태현(비취캐 인문대)

10/18
환경협력 프로그램
〈특별강연〉 생태인류학자의 귀주이야기 - 소
수민족 삶과 마을
전경수(인류학과)

10/18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인도네시아 한인 1세대의 시대기
록과 성찰



김문환(재인도네시아한인회)

10/18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
〈콜로키움〉(11) 강남 정체성의 형성



이영민(이화여대)
이동현(U. College London)

10/20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기획워크
숍 시리즈 II : '조력자에서 주창자로: 한국 개
발NGO의 새로운 정체성 전환 / '국제개발협
력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김태균(국제대학원)
김성규(아시아연구소)

10/21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Global Capitalism and
Culture in East Asia



김명수(한양대)
Hsin-Huang Michael Hsiao(Inst. of
Sociology, Academia Sinica, Taiwan)
Cheris Shun-ching Cahn(U. of Hong Kong)
Alvin Y. So(Hong Kong U. of Science
and technology)
Yin-Wah Chu(Hong Kong Baptist U.)
Yoshitaka Mouri(Tokyo U. of the Arts)
양중희(성균관대)
Koichi Iwabuchi(Monash U.)
Goh Beng Lan(Nat'l U. of Singapore)
최향섭(국민대)

10/24-28
아시아연구소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

10/24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독립 25년의
여정과 성과



H.E. Botirjon ASADOM(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10/25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Indonesia 2016: A Political and
Economic Update
Jamie S. Davidson(Nat'l U. of Singapore)

10/25
미-중관계 프로그램
〈미-중관계세미나〉 (24) East Asian
Regionalism, China and the US: Or Is
the Pacific Wide Enough?
Tang Shiping(Fudan U.)

10/25
중점연구소/ 경제학부/ 경제학부 BK21Plus
사업단
〈세미나〉 Lessons from Transition Experiences
in FSU and Europe for North Korea



Christopher Davis(Oxford U.)

10/2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우즈베키스탄 전문가 초청특강



Mirsadi ISKHOV(Tashkent State Inst. of Oriental Studies)

Shukhrat YOYKOCHEV(Tashkent State Inst. of Oriental Studies)

10/27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1) The Cross Asian Integration: A Case of Uzbek-Korean Integration along the Silk Road: The Prospects and Obstacles

Mirkomil SADIKOV(Kadir Has U.)

10/28

동남아시아센터/한-아세안센터

〈세미나〉 메콩의 환경, 개발 그리고 생태관광



윤순진(환경대학원)
이상국(연세대)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이요한(아시아연구소)
김영선(한-아세안센터)

10/28

동북아시아센터 / 통일평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소련형 대학의 형성과 해체: 북한의 대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각



박원용(부경대)
Ingrid Miethe(독일 기센대)
Tran Thi Phuong Hoa(베트남 역사학연구소)
Yunquan Chen(전 중국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소장)
채미화(연변대)
임홍배(국어국문학과)
정근식(사회학과)

11/1

동북아시아센터 / 광주비엔날레

〈워크숍〉 구체적인 응답: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

최빛나(광주비엔날레)
Maria Lind(광주비엔날레)
정근식(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심보선(경희사이버대)
이동신(영어영문학과)
김홍중(사회학과)
윤여일(제주대)
주윤정(아시아연구소)

11/3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2) Fan Culture and Leaders of Fan Community

Cencen Hu(Renmin U. of China)

11/4

환경협력프로그램 / 국토문제연구소

〈콜로키움〉 중국-북한 접경지역 관광개발구 현황

김석주(연변대)

11/5

마-중관계 프로그램 / 도쿄대 대안정책연구소

〈워크숍〉 5th Korea-Japan Dialogue on East Asian Security



정재호(정치외교학부)
Akio Takahara(U. of Tokyo)
임재환(Aoyama Gakuin U.)
여유경(경희대)
김재철(가톨릭대)
Masafumi Iida(Nat'l Inst. of Defense Studies)
조세영(동서대)
김한권(국립외교원)
Shino Watanabe(Sophia U.)

11/10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3) Labor Force Characteristics in the Economic Pole of Phnom Penh, Preah Sihanouk and Siem Reap

Chantha Chea(Royal Academy of Cambodia)

11/10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기획워크숍 시리즈 III : 지역화된 사회운동: 내적 동학과 경계의 문제



정영신(제주대)

11/10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 한국정치연구소

〈특별강연〉 관악구의 시민정치: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살기 좋은 관악구 만들기

유종필(관악구청장)

11/17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Indonesia Latest Update: Special Insight from MarkPlus, Inc.



Hermawan Kartajaya(MarkPlus, Inc.)

11/18

아시아연구소 /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서울대학교 - 부라파대학교 교류연주회

11/22

대중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한국합창, 그 기원과 전망



MC메타(본명 이재현, 합창뮤지션)
김봉현(대중음악평론가, 합창저널리스트)

11/23

마-중관계 프로그램

〈마-중관계세미나〉 (25) 마-중간 한국의 딜레마-해법은 무엇인가?



신각수(전 주일 대사)
이규형(전 주중 대사)
정재호(정치외교학부)

11/24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4) State Transformation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Nationalism: The Taiwanese Semiconductor Industry as a Case Study

Jinn-yuh Hsu(Nat'l Taiwan U.)

11/24

시민사회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 제2회 협동조합 정책포럼



강신욱(진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현배(성남 주민실험)
경창수(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허경희(행복중심생협)

11/30

동북아시아센터 / 거제시

〈국내학술회의〉 포로수용소 유네스코 세계 기록 및 문화유산 등재 타당성

정근식(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전갑생(아시아연구소)
강성현(성공회대)
정호기(한국현대사회연구소)

11/30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특별강연〉 한국의 전력거래 제도와 발전방향
조강욱(한국전력거래소)

12/1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세미나〉 (5) The Research of Variations on Translation Versions of 〈Jian-Deng-Xin-Hua〉: Library Collection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ogang University as Examples

Heyun Sun(Communication U. of China)

12/5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전자정부 수출을 위한 동남아 진출 및 세계화 전략
 이상준(주식회사 로딕스)

12/06
 시민사회프로그램
〈특별강연〉 The Structure of Protest Cycles: Contagion and Cohesion in South Korea's Democracy Movement



Paul Y. Chang(Harvard U.)

12/8
 아시아연구소
2016 아시아연구소 박사학위논문상 시상식 및 발표회



이선화(인천대)
 지은숙(한림대 일본학연구소)
 김양희(건강보험정책연구원)

12/10
 미-중관계 프로그램
〈워크숍〉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사례 연구와 평가
 정재호(정치외교학부)
 김시중(서강대)
 손열(연세대)
 김한권(국립외교원)
 우정엽(아산정책연구원)
 최중건(연세대)
 이동률(동덕여대)
 김현준(고려대)
 박창희(국방대)
 이근(국제대학원)
 조세영(동서대)

12/13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기획워크숍 시리즈 IV : 지속가능한 고용제제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12/16
 아시아연구소
〈특별강연〉 대선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상황



H.E. Botirjon ASADOV(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Eldor ARIPOV(국제관계정보분석센터)

12/19
 동남아시아센터
〈초청강연〉 Understanding Muslim Tourists Behaviour Toward a Muslim-Friendly Tourism
 Noor Raihan Ab Hamid(UNITAR Int'l U.)

12/26
 환경협력 프로그램
〈워크숍〉 풍수현대화를 위한 워크숍
 박수진(지리학과)
 최원석(경상대)
 진종현(공주대)
 천인호(동방문화대)
 김병우(대구한의대)
 권선정(서원대)

12/29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제5회 KOSSDA 논문상 시상식



이윤경(연세대)
 탁장한(사회복지학과)
 강태영(서강대)

1/5
 민주주의와 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특별강연〉 시민정치와 언론
 신정선(조선일보)

1/25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기획워크숍 시리즈 V : 비즈니스-시민사회 관계장(關係場)의 형성과 발전: 새로운 기업 역할 모색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2/3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워크숍〉 제2회 데이터 페어: 패널데이터



이상호(한국고용정보원)
 김서영(통계청)
 김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재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궁지영(한국교육개발원)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김진석(서울여대)
 이영조(통계학과)

2/8
 중앙아시아센터
〈워크숍〉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의 전통생활문화
 양승조(아시아연구소)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2/9
 민주주의와 경제발전프로그램/한국정치연구소
〈콜로키움〉 동네 안의 시민정치: 시민활동가
 이원재(여시재)
 이미경(은평혁신교육지원단)
 손우정(세상을 바꾸는 꿈)
 조철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2/13
 동북아시아센터
〈세미나〉 The AIIB and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Ming Wan(Associate Dean / Schar School of Policy and Government George Mason U.)
 정재호(정치외교학부)

2/17
 환경협력 프로그램
〈국내학술회의〉 통일시대 국토공간 심포지움



홍기현(사회대 학장)
 정근식(서울대)
 이용우(서울대)
 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현국(한국임업진흥원)
 이복남(건설환경연구원)
 홍승표(개성공업지구)
 김석주(연변대)
 베른하르트 켈리거(한스자이델재단)
 조충희(북방연구원)
 정현주(서울대)

2/20-24
 환경협력 프로그램
〈워크숍〉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IPBES의 아시아지역 전문가

2/23-24
 시민사회프로그램
〈워크숍〉 [한국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집필진 기획회의



임현진(사회학과 명예교수)
 공석기(아시아연구소)
 김성규(아시아연구소)
 김영춘(울산과학기술원)
 김태균(국제대학원)
 정영신(제주대)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출판

아시아연구소에서는 아시아 관련 다양한 주제 연구 성과를 다룬 정기 학술지 <아시아리뷰>를 연 2회 정기 발행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비롯한 학술 전문 출판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총서>와 <세계 속의 아시아 연구 시리즈> 등 아시아 지역의 학문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출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리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연 2회 발행하는 <아시아리뷰>는 인문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연구와 주제연구의 통합을 모색하며 다양한 아시아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 연구'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상호 융합을 시도하며, 다각적인 시야에서 미래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아시아리뷰>는 2011년 6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고, 2015년 7월에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6권 1호, 2호(통권 11호, 12호)를 발간하였고, '아시아 음식문화', '아시아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아시아 연구 학술지로서 진일보하였다

<아시아리뷰> 6권 1호(통권11호)

국민사와 냉전

국민사와 냉전: 범아시아적, 범태평양적 비평으로 | 리사 요네아마

"국민사와 냉전" 에 부쳐: 범아시아적 비평 | 충유에전

"국민사와 냉전:한태평양적 비평" 토론문 | 박명규

자유주제

방글라데시의 봉제업: 희망으로의 혐로 | 한인수·엄금화

부패가 군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국가군별 패널 자료 분석 | 이재형

아시아자본주의2:기원, 공통성과 다양성

동서(東西) 자본주의 비교하기 | 잔 네데벤 피터스

지역적 자본주의와 전지구적 기술과학: 전지구적 변화의 힘으로 통제 가능한가 | 볼프 슈퍼

다국적 제조 기업의 실험주의 시스템 | 게리 헤리켈

장기 활황은 끝났는가?: 중국의 장기 성장에 대한 제도비교·분석 | 토비아스 스텐 브린크

'위안화 스와프 라인'과 긴급자금 대여국으로서의 중국의 새로운 역할: 아르헨티나 사례가 주는 증거 | 로드리고 루이즈 메데이로스 다 실바

아시아 투어리즘: 아시아여행과 지리적 상상

동아시아에서의 탈냉전과 전장 관광의 지속가능성: 진면을 중심으로 | 정근식·오준방

가짜가 만들어진 진짜, 관광문화에서 진정성의 다양화: 신고촌 그리스도의 무덤사례를 중심으로 | 오카모토 료스케

'진정성' 구축과 복수성: 동아시아 군함도 사례에서 | 키무라 시세이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자아구축 | 저우치엔

동상이몽?: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일본 미디어의 시선과 재현 | 황성빈

연구노트

라틴 아메리카에서 바라본 아시아 세계: 아시아 지역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클라우디아 코스타 피네이루

<아시아리뷰> 6권 2호(통권12호)

자유주제

서울과 나고야 노인의 생애사와 가족변화: 근대가 족의 탄생과 종언의 생애사적 자취 | 박경숙

동아시아 사회적 경제공동체는 어디로 가는가?: 일본의 실험과 도전 | 강병노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제도 전개 과정 연구 | 박정준

글로벌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문화

중국의 국가 신자유주의의 문화적 모순 | 엘빈 소·인화 쉼쉴

동아시아의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일본의 근접한 적들 | 고이치 이와부치

말레이시아의조용한혁명: 세계자본주의시대, 새로운 저항의 정치 | 고병란

아시아 투어리즘 II: 아시아 여행과 지리적 상상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과 여행 체험 | 강명구·남은영

서울의 '재구조화'와 일본인 관광: 강남개발을 중심으로 | 김성민

누적적 인과이론의 관점에서 본 국제관광 공간의 발생: 중국의 경험에서 | 양위청

동남아 지역연구 리뷰

한국의 태국 연구: 동향과 과제 | 김홍구·이미지

서평

김익영·미우라 히로키 편,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 김용호

하타노 세츠코 지음,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 최종고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리뷰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uac.snu.ac.kr>

2016년 아시아연구소 출판 풍년의 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2건

2016년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리뷰 통권 11호, 12호를 포함하여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아시아연구 총서>,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시리즈>를 통해 총 12권의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그 중 2015년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발간한 <글로벌 패러독스: 아시아의 도전과 과제>(2015)(임현진 교수 외)와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2015)(김의영 교수 외)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글로벌 패러독스(2015)>는 국가 간 비교분석 전략을 토대로 한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다양성 논쟁과 세계화 및 반(反)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아시아 발전모델의 모색 과정을 통해 현재 아시아에 필요한 도전과 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2015)>은 3국 간의 어떠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있으며, 사회적 경제의 본고장인 유럽 국가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한·중·일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지형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와 주제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 결과물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단행본 출판 사업을 통해 연구 결과물의 아카이빙을 도모하고 있다. <열린강연 시리즈>는 아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교양서적으로 엮은 것으로 모두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드의 연장선에서 응축된 결과물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글로벌 패러독스 - 임현진·서문기·윤상우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지난 세기 서구 세계는 세계화 과정을 통해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 그림을 따라가기 위해 훈련됐지만, 오늘날 여러 국가가 발전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상황이다. 변화의 중요성은 신(新)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의 딜레마와 이를 풀기 위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국가 간 비교분석 전략을 바탕으로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은 독자적인 완결성을 지니면서도 전체적인 틀과 그에 상응하는 논리와 체계를 갖도록 발전의 이론과 경험의 적실성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제1부에서는 세계화의 진행과정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발견적(heuristic) 범주로서 세계화의 논리와 발전의 의미를 탐구한다.

제2부에서는 세계화의 구조와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신자유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과 민주화 과정의 '빛과 그림자'를 경험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이에 따라 세계화와 사회발전의 불평등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한다.

제3부에서는 세계화 과정에 따른 발전의 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구촌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간주되는 글로벌 발전의 전망과 함께 한국의 역할과 과제를 다룬다.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 김의영·미우라 히로키 편 | 진인진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황과 제도적 성격 및 발전과정을 광범위한 자료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비교 연구하여 각국의 특색과 공통점을 추출하였다. 이 책에서는 세 나라 사회적 경제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 혼종성 동태성에 주목하였고, 이 세 가지 기준에 착목한 '사회적 경제 조직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즉, 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들의 사회적 경제를 묘사한 조직지형도가 각각 작성되고, 결론 부분에서는 세 나라 현황을 통합한 조직지형도가 제시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획일적인 개념화와 정태적인 유형화 방식을 지양하고 각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동태적인 모습을 분석하였다.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 연구진은 2013년부터 정기적인 워크숍과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및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학술회의와 같은 국내외회의와 세계정치학회, 글로벌 사회적 경제 포럼 등 국제회의를 통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수정·보완해 왔으며, 각 국가별 원고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단행본 발행을 계기로 서론과 결론이 최종 작성되었으며, 국가별 관련정보를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한·중·일 사회적 경제 Mapping>은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은 물론 사회적 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활동가 일반에게 유용한 연구서가 될 것이다.

아시아 근현대사 총서

중국의 감춰진 농업혁명 - 황종즈(黃宗智) 지음, 구범진 번역 | 진인진

이 책은 중국 농업경제의 발전과정을 다룬 1편과 현대 중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한 2편으로 구분되어 총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중국 특유의 '인구 압'의 영향으로 1인당 단위 생산량 증가가 정체되는 '발전없는 성장' 양상이 명·청 시대 이래 600년간 지속되고, 이러한 양상은 여타지역에서 농업생산력 발전의 성과가 상쇄되고 있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농업혁명은 개방 이후 '감추어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근대화에 따라 환금성이 높은 고급 농산물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이 저자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현상이다. 2편에서는 광범한 도시화와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비정규 경제와 소자단계 및 중간단계로 특징되는 중국 경제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공공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농업 생산에 있어서 소농장을 기본 생산단위로 하는 합작화원, 고소득의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 근대화와 식민지 경험 - 취샤오판(曲曉范) 지음, 박우 번역 | 진인진

1840년 1차 아편전쟁 이후 러일전쟁의 시기는 서구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된 시기인데, 이 책에서는 산해관 동쪽 동북지역이 1860년 2차 아편전쟁이 종결된 직후 랴오허강 하구의 항구들이 개항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1부에서 다루고 있다. 즉, 이 시기 도시화의 주요 경향은 랴오허강 유역 항운 발전과 중동철도의 건설이었음을 주목하고 있다. 2부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만주사변의 시기로 동북지역의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정부, 서구열강, 일본에 의한 다양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설명한다. 만주철도 부속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의 과정을 식민지화와 근대화의 시각으로 관찰하였으며, 심양, 하얼빈, 대련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중국 고대도시와 러시아, 일본의 주도에 의해 발전된 도시들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3부는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본격적 침탈기의 도시화 과정을 장춘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아시아연구 총서

평화적 세력전이의 국제정치 - 정재호 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1세기 미국 패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20세기 전반 영-미 간 세력전이가 이뤄진 후-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시 한 번 패권의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세계 각지에서 분분하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역사의 비극적인 반복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주장해온 중국을 감안하여, 영-미 간의 평화적인 세력전이가 21세기 미-중 관계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책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다루이지 않은 주요 주제로 '패권국-부상국 간 상호인식'이라는 틀을 사용해 19~20세기에 일어난 영-미간 패권 이전을 21세기 미-중 관계와 비교 대상으로 삼아 분석함으로써 세력전이의 발생과 함께 평화적 진행 과정의 전제조건을 찾아본다.



아시아의 혁신·창조 활동과 세계경제질서 - 박지형 외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부분 중 하나는 혁신·창조활동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데 따른 선진국들과 신흥국들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다. 애플과 삼성의 국제적 특허소송전과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의 약진에 대응하는 선진국들의 견제는 혁신·창조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혁신·창조활동은 새로운 지식, 문화,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들은 본질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쉽게 파급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이 책에서는 '이동과 흐름에서 본 아시아(Transnational Asia)'라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혁신·창조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세계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한다. 따라서 아시아와 세계의 혁신·창조활동에 대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과 아시아 중심의 질서 재편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세계 속의 아시아연구 시리즈

다렌연구 - 초국적 이동과 지배, 교류의 유산을 찾아서 - 정근식·신혜선 편 | 진인진

이 책은 동북아시아에서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실태를 ‘다렌’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이동과 흐름’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다렌, 훈춘 두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아시아 지역의 초국적 이동과 협력에 관한 지역 매개 연구의 성과 가운데 다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교류와 이동 양상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다렌 지역의 경제, 관광, 문화를 연구하는데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학 - 역사, 현실, 전망 - 정근식 엮음 | 진인진

이 책은 북한 대학의 역사적인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북한의 대학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대학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북한과 교류와 협력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기획하였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대학형성을 초기, 중기, 현재로 구분하였고 세계적인 맥락에서 북한대학의 모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시아는 통한다 - 흐름과 관계를 통해 본 知圖 - 이재열·임현진 엮음 | 진인진

이 책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로서 자연지리, 국제정치, 경제성장, 사회심리,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아시아를 각 지역 간의 인적, 물적 교류 등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연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한다’라는 개념은 아시아를 개별 국가 단위로 이해하는 ‘실체론적 사고’를 넘어서서 아시아 각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중심으로 관찰하여 이해하는 ‘관계론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인식은 경계와 정체성의 문제, 관계 속에 자리 잡은 기회와 제약의 구조, 상호의존성과 동형화의 경향, 통합의 주체에 대한 다면적인 이해를 중심에 두고 대상에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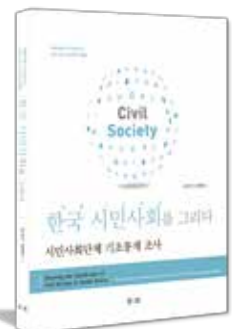
냉전의 섬 금문도의 재탄생 - 정근식·김민환 편 | 진인진

20세기 양안관계에 있어서 그 갈등과 화해의 최접점에 있던 금문도라는 지역을 고찰함으로써 양안관계 전개에 있어서 금문도 및 대만해협이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금문도’는 외부의 힘에 의해 분단되고 내부의 힘에 의해 이러한 경계가 다시 허물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의 생활권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 곳이다. 이 책은 그 경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역사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 - 공석기·임현진 지음 | 진인진

이 책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민간부분의 여론 형성과 비영리 영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첫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이다. 문민정부의 출범 이래로 대한민국의 정치과정에서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고, 현재에도 그 비중이 더해져 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조망을 제공하였다.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시리즈

아시아의 부상, 문명의 전환인가 - 임현진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시리즈의 첫 시리즈로 출간된 이 책에는 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인적·물적 소통과 교섭을 통해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담겨 있다. 또한 세계경제와 국제정치에서 미국과 중국의 뒤바뀌고 있는 위상을 중국과 미국의 두 저명한 학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본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제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후안강(胡鞍鋼) 교수와, 이와 달리 미국의 헤게모니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쿵찬(Charles A. Kupchan) 교수의 서로 다른 입장이 흥미롭다.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현실적인 지위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다루면서,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공통체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와 함께 동북아시아 3국(한국·중국·일본)의 전망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 역사분쟁 - 갈등의 현장을 찾아 화해의 길을 묻다 - 안청시·최종호 엮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동북아 3개국인 한·중·일 간의 바람직한 평화와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이들 3개국 간의 역사분쟁과 갈등의 현장을 탐방하면서 기록한 답사기인 이 책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와 국제관계이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영토, 역사문제를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한국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위안부, 개성공단 등 과거와 현재의 분쟁은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긴장과 갈등을 넘어 평화를 위한 반성과 성찰, 관용과 화해를 내다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짚어 보고자 하였다.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 - 베트남 편 - 오명석 엮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베트남 편)〉에서는 한국으로의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베트남 사회의 인식, 그리고 이주여성 당사자의 경험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인의 해외노동이주와 국제결혼이주가 199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현장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베트남 국제결혼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도 되짚어 보고 있다.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

아시아연구소는 국내에서 취약한 아시아 권역별 '지역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주제연구'를 결합한 우수한 아시아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도에도 기획과제,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SNUAC 박사학위논문상 등을 통해 아시아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아시아 기초연구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또한, 매년 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부의 주최로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 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아시아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의 연구 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아시아기초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회는 세계 아시아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아시아 연구 주체로서의 독자적인 지식 생산의 방향과 내용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이다. 무엇보다 1년에 한 번씩 지역과 주제의 결합에 기초한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아시아연구소의 비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기초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서구 중심의 방법론과 지식 생산 구조를 넘어서 학문연구의 독자성과 자립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2016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 공모과제 사업

- 권혁용 외(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동아시아 국가의 시민선호와 복지국가
- 박영은 외(한양대 태대지역연구소) 현대 중앙아시아 대중문화의 시원(始原)인 'KVN'의 통·공시적 지형도 및 의미장 연구
- 신광영 외(중앙대 사회학과) 아시아의 '불안정 노동' 비교 연구
- 이근 외(경제학부) 4차산업혁명에 기회의 창인가 중진국함정을 고착시킬 것인가: 동남아의 메콩델타와 폐농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적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 이태동 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아시아 핵에너지 비교 정치: 핵에너지개발국가 이론의 개발 및 적용
- 장기영 외(국제문제연구소) '역사에 대한 기억'의 전략적 이용과 불안정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영토분쟁에서의 국가지도자 행위와 국내여론을 중심으로
- 홍석경 외(언론정보학과) 동아시아의 컨버전스 문화
- Blaž Kržnik 외(한양대 도시대학원) 동아시아는 후기 개발주의 도시로 향하고 있는가? 서울과 싱가포르의 공동체 정책 및 실천양식 비교 연구

2016년도 아시아연구소 기획연구 초청과제 사업

- 안도경 외(정치외교학부) 아시아 사회경제적 다양성과 공통의 과제
- 이재진 외(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한국, 일본, 프랑스의 혐오표현에 대한 비교 연구
- 이현정 외(인류학과) 변하는 중국, 변하지 않는 중국
- 황석만 외(창원대 사회학과)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2016년도 아시아연구 저술 지원사업

- 권영숙(사회과학연구원) 민주주의와 노동의 상호동학: 동아시아적 유형의 가능성
- 윤선희(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아시아 정체성: 문화적 혼종성과 저항성의 경계
- 이성범(서강대 국제인문학부) 한국, 일본, 싱가포르의 행복 감정 소통에 관한 문화향단적 연구
- 임경택(전북대 일어일문학과) 동아시아의 '독서공동체'와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

2016년도 SNUAC 박사논문 작성 지원사업

- 문경연(인류학과) '대만인의 배우자'와 '동포' 사이에서: 대만 내 중국 결혼 이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
- 백서인(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과) 아시아 혁신모형 연구: 한중일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 기업전략 및 산업정책, 미래전략을 중심으로
- 위선주(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생활
- 이재영(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중국 지방정부 제도 혁신의 정치경제
- 한유석(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경계 위에 선 이주민의 혼종적 정체성: 태국 이주 카친족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2016년도 아시아연구 주제개발 집담회 지원사업

- 고가영 외(아시아연구소) 서부 환(環)해역 지역의 인종주의
- 김성규 외(아시아연구소) 아시아 개발협력 사업 평가와 방향성 모색
- 김수아 외(기초교육원) 문화연구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적인 것) 읽기
- 김시덕 외(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아시아학으로서의 한국학 하기
- 심희정 외(아시아개발연구소)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국제개발 담론의 형성 및 전개 가능성: 아시아 호랑이를 중심으로
- 이현정 외(인류학과) 아시아 지역의 신체 담론과 의료 개입에 관한 비교문화적 고찰
- 홍석경 외(언론정보학과) 동아시아 컨버전스 문화와 새로운 문화산업의 논리
- 홍찬숙 외(여성연구소) 동북아 여성 지위에 대한 다차원적 비교

2016년도 박사학위논문상

- 김양희(이화여대 여성학과) 한국 공적개발원조 모자보건사업의 수원국 여성 행위자 연구 - 라오스 터울조절과 낙태를 중심으로
- 이선화(인류학과) 초원을 나는 닭(草原飛雞): 중국 내몽고 초원 사막화 방지의 생태정치
- 지은숙(인류학과) 비혼(非婚)을 통해 본 현대 일본의 가족 관계와 젠더 질서

아시아연구소 외부 연구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제명: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연구책임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총연구비: 332,350,000원

공동연구원: 김재영(경제학부), 박수진(지리학과), 임혜란(정치외교학부), 김병연(경제학부), 이철인(경제학부), 김소영(경제학부)

연구 단계: 3단계 1차년도(2016. 9~2017. 8)

신흥지역 연구사업

과제명: '문화에 민감한' 시장진출 전략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말레이-이슬람 문화권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례연구

연구책임자: 오명석(인류학과)

총연구비: 290,463,000원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형준(강원대), 유창조(동국대), 이응철(덕성여대)

전임연구원: 엄은희, 이지혁, 정범모, 최경희

연구 단계: 2단계 2차년도(2016. 9~2017. 8)

SSK(Social Science Korea) 사업

과제명: 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연구책임자: 박지형(경제학부)

총연구비: 143,317,000원

공동연구원: 안덕근(국제대학원), 이지홍(경제학부)

전임연구원: 노재연

연구 단계: 2단계 3차년도(2016. 9~2017. 8)

과제명: 세계화 시대, 동아시아 도시의 위기와 전환

연구책임자: 박배균(지리교육과)

총연구비: 297,720,000원

공동연구원: 김동완(경남대), 김은혜(히토츠바시대학대학원), 신현방(연세대학교), 이상현(한신대), 이승욱(카이스트), 장세훈(동아대),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지주형(경남대), 제이미 두셋(맨체스터대), 짐 글래스만(브리티시컬럼비아대), 쉬진위(대만국립대)

전임연구원: 심한별, 황진태

연구 단계: 2단계 3차년도(2016. 9~2017. 8)

토대연구 사업

과제명: 현지조사를 통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전통생활문화 총서 및 DB구축

연구책임자: 강정원(인류학과)

총연구비: 256,885,000원

공동연구원: 강명구(언론정보학과), 남영호(신한대),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정형호(전북대)

전임연구원: 양승조, 최아영

연구 단계: 3차년도(2016. 9~2017. 8)

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 중국협력사업

과제명: 동아시아 창의세대의 비교 연구-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홍중(사회학과)

총연구비: 103,120,000원

공동연구원: 김석호(사회학과), 주윤정(아시아연구소), 진젠빈(칭화대), 추아제(푸단대)

연구 단계: 3차년도(2016. 10~2017. 9)

기초학문자료센터(DB구축사업)

과제명: 사회과학분야 DB 구축사업

연구책임자: 이재열(사회학과)

총연구비: 120,000,000원

공동연구원: 한준(연세대), 하상응(서강대), 김두환(덕성여대)

전임연구원: 최문희, 진윤아

연구 단계: 1차년도(2016. 4~2017. 3)

일반연구 지원사업

과제명: 메콩 유역 개발과 환경 협력의 딜레마와 거버넌스

연구책임자: 윤순진(환경계획학과)

총연구비: 128,900,000원

공동연구원: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요한(아시아연구소),
이승호(고려대), 이상국(연세대), 이준표(아시아연구소)

연구 단계: 3차년도(2016. 12~2017. 11)

과제명: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선택

연구책임자: 신범식(정치외교학부)

총연구비: 67,543,000원

공동연구원: 오원교(노어노문학과), 김태연(노어노문학과),
양승조(아시아연구소), 고가영(아시아연구소)

연구 단계: 2차년도(2016. 11~2017. 10)

공공응역사업

과제명: 개별 ASEAN 회원국에 대한 우리기업 진출방안 모색 (외교부)

참여연구원: 오명석 외

총연구비: 27,272,728원

연구기간: 2016. 7. 11~2016. 12. 10

과제명: 2016년 국가주요지표 체계 개편 연구 (통계청)

참여연구원: 이재열 외

총연구비: 133,136,000원

연구기간: 2016. 6. 16~2016. 12. 15

과제명: 북한 산지토양정보 고도화 및 적정 조림수종 선정 사업 (한국임업진흥원)

참여연구원: 박수진 외

총연구비: 51,136,364원

연구기간: 2016. 6. 13~2016. 11. 30

과제명: 한국의 사회동향 2016 연구 (통계청)

참여연구원: 이재열 외

총연구비: 92,909,091원

연구기간: 2016. 5. 4~2016. 10. 31

과제명: 한반도(충청, 용천도) 포로수용소 다큐멘터리 제작 용역 (지방자치단체)

참여연구원: 전갑생 외

총연구비: 17,181,818원

연구기간: 2016. 4. 26~2016. 11. 22

과제명: 거제도포로수용소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타당성 용역 (지방자치단체)

참여연구원: 정근식 외

총연구비: 72,727,273원

연구기간: 2016. 4. 15~2016. 12. 10

과제명: 아시아 문화지표 개발 기본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아시아문화원)

참여연구원: 강명구 외

총연구비: 45,000,000원

연구기간: 2016. 1. 29~2016. 9. 30

교육

아시아연구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새로운 교육 모델을 통해 전 세계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11년부터 개설, 운영 중인 아시아연구소의 대표적인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인 e-School Program을 비롯하여 아시아연구소로 이관된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지역전문가 교육 심화과정과 한-일 국제공동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및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였다.

KF Global e-School Program

아시아연구소는 한국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대 한국학 강의를 해외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으로 2011년부터 한국사회를 비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국제 한국학 강의를 개설, 운영해오고 있다. 아시아연구소는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실시간 화상강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적 강의를 개설하며, 지난 6년간 아시아와 유럽 8개국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59개의 강좌를 운영해왔다.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 및 국가별 최우수 명문대학을 협력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과 연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를 접목, 결합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6년 아시아연구소의 e-School Program에 참여한 외국 대학은 중국의 칭화대, 러시아의 고등경제대, 독일의 튀빙겐대, 프랑스의 파리7대(디드로), 이날코, 보르도-몽테뉴대와 베트남 국립하노이인문사회대이다. 아시아연구소는 지난 1년간 이들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1명의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하여 정규학점이 부여되는 11개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총 314명이 e-School Program에 참여하였다.

2016 e-School 강의 교수

	강명구(언론정보학과)		김의영(정치외교학부)
	김인결(국사학과)		김홍중(사회학과)
	김희민(사회교육과)		박배균(지리교육과)
	배은경(사회학과)		신의항(아시아연구소)
	은기수(국제대학원)		정홍익(행정대학원)
	홍석경(언론정보학과)		

또한 e-School Program은 2016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과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와의 협력으로 '2016년 KF Global e-School Fellowship Program'을 진행하였다. 2016년 e-School Fellowship Program은 2015년 e-School 강좌를 수강한 학생 가운데 4개국 6개 대학에서 8명의 우수 수강생을 초청하여 진행하였는데, 참가자는 러시아 고등경제대 1명, 프랑스 파리7대 1명, 보르도-몽테뉴대 1명, 베트남 국립하노이인문사회대 2명, 중국 칭화대 2명, 경북대 1명이었다.



4주간 진행된 e-School Fellowship Program 참가 수강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 국제하계강좌 등록비 및 학비, 기숙사비가 지원되었다. 또한 서울 방문 기간에는 아시아연구소 동아리 및 연구연수생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생들 간 친밀감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 내의 다양한 학술, 교류행사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외 수강생들과 교류를 희망하는 국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교류와 연계된 e-School Program은 아시아연구소가 e-School 2단계 사업기간(2015년~2017년)을 통해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연구소는 해외 수강생 초청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국제하계강좌를 수강하면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를 단기간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가을학기 튀빙겐대 오프라인 강의: 은기수 교수



2016년 겨울학기 보르도-몽테뉴대 이스쿨 오프라인 강의: 홍석경 교수

※ 2016년 e-School 강의 목록

봄 학기

- Popular Culture and Media in Korea (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 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Univ.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Cultur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Korea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가을 학기

- Popular Culture and Media in Korea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VNU, Hanoi, Vietnam)
- Cross-Cultural Explorations in East Asia (Tsinghua Univ., China)
- Introduction to Korean Studies (Nat'l Research Univ.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 Korean Political Economy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Germany)
- Research Methods in Korean Studies (Université Paris Diderot, France &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France)

겨울 학기

- Social Traditions of Korea: Contemporary Korean Society (Nat'l Research Univ.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 Introduction to Korean Politics (Nat'l Research Univ.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 Popular Culture and Media in Korea (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 France)

KOSSDA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연구자와 대학원생의 자료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KOSSDA의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최정상급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하며, 다양한 교육 수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동·하계 워크숍과 강의 중심의 춘·추계 단기강좌의 형태로 개설되고 있다. 2016년 춘계(4월 2일~5월 28일)와 추계(10월 8일~11월 26일) 단기강좌에는 다중회귀분석, 구조방정식, 위계선형모형, 비선형회귀모형, 패널분석, 생존분석, 시계열분석 등 고급통계학 9개 강좌가 개설되어 총 245명이 수강하였고, 2016년 하계(7월 4일~8월 12일)와 2017년 동계(1월 2일~2월 24일) 워크숍에는 기초통계학과 중급 및 고급 통계학을 포함하는 16개 강좌가 개설되어 총 549명이 수강하였다. 2016년에는 강북지역의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재)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서울대 연건캠퍼스에도 9개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 동계 방법론 워크숍 네트워크분석 강좌: 한신갑 교수

동남아시아전문가 심화과정: 인도네시아 편

동남아시아센터는 KOTRA 아카데미(전 KOTRA 글로벌연수원)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인 및 예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한 실무 지식 외에도 인도네시아 사회문화배경을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지리, 정치, 이슬람, 조직문화 등에 대해서도 관련 학자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때마침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본 과정은 이틀간 총 8회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 학계, 정부 기관 등 다양한분야에서 32명이 수강하였다.

주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센터-KOTRA 아카데미

일시: 2016. 5. 26(목)~27(금)

수강인원(대상): 32명(기업 임직원 및 일반인)

강의진: 김형준(강원대), 방정환(전 매일경제신문), 송유형(KOTRA),

엄은희(아시아연구소), 이지혁(아시아연구소),

조운미(비교문화연구소), 최경희(아시아연구소), 채경호(KOTRA)



지역전문가교육 심화과정: 인도네시아 편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컬리지 프로그램은 서울과 후쿠오카를 오가며 실시하는 체험형 '한-일 국제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한일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016년도 프로그램은 2017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캠퍼스 일본(2월 14일~21일, 큐슈대)과 캠퍼스 한국(2월 21일~28일, 서울대)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큐슈대, 연세대, 세이난가쿠인대 학생 총 39명이 참가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와 토론, 견학, 학생 주도 필드워크, 기업 탐방 및 인턴십,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및 한일관계에 관심이 있는 후학세대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

아시아연구소는 미래의 아시아 연구를 주도할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구연수생 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실무능력을 겸비한 연구연수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와 주제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 중인 2개의 교내 동아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연구 참여를 꿈꾸는 학문후속세대에게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연수생, 책 속에서 필드까지의 경험을 통한 아시아 미래전문가 양성

아시아연구소에서는 미래의 아시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연구연수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연수생은 아시아 연구에 관심을 둔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2월까지 6기 연구연수생 운영을 마무리하였다. 연구연수생들에게는 아시아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 및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행정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5기 수료생 6명, 6기 수료생 10명을 배출하였다.

연구연수생 프로그램은 1학기 동안 10회에 걸친 아시아학 개론 수업 및 자치 세미나, 답사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소논문 작성 프로그램’은 1학기 동안 아시아학개론 및 자치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5기 연구연수생 프로그램부터 도입되었다. 수료식과 함께 연구소 내부 심사에 따라 수료생들에게는 최우수상부터 장려상이 주어진다.



제5기 연구연수생 수료식(2016. 8. 12)

제5기 연구연수생 명단

김명혜(작곡과)
이유라(한국외대 통번역학과)
이하정(연세대 동아시아국제학부)
이한림(서울교대 윤리교육과)
한지혜(인류학과)
함새롬(고려대 국제학부)

제6기 연구연수생 명단

고지은(인천대 독어독문학과)
권은채(인류학과)
김솔아(광운대 국제학과)
김영욱(토론토대 외교학과)
백인하(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윤동준(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윤보영(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장성민(역사교육과)
장준영(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홍예륜(지리학과)

아시아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

아시아연구소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아시아의 문화와 주제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 중인 교내의 2개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아미고’

아미고는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임’의 약자로, 아시아의 지역별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 독서 세미나를 운영하는 동아리다. 매주 열리는 정기 독서 세미나 및 아시아 관련 서적의 저자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북토크를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시아 지역연구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화두가 된 주제가 ODA(공적개발원조)와 SDG(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인 만큼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6기 신입 부원을 선발하여 ‘불평등’, ‘지역발전’, ‘법제도와 이행수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를 편성한 후 연구 및 답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 ‘FICS’

FICS(Foundation of Intercultural Cooperation)는 사회연구 및 교류 동아리다. ‘협동의 촉진-생각의 공유와 새로운 현실에의 도달(Sharing ideas and reaching new realization)’이라는 취지 아래 도쿄대 소속의 동명의 단체와 함께 서울대-도쿄대 간 교류를 하는 것이 FICS만의 특징이다. 학기 중에는 각 단체가 개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매년 8월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동경에서 1주일씩 총 2주간 양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의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도 1학기의 주요 활동은 리크루팅과 예비 세션이었다. 지난 3월 21일, 사회대 신앙관에서 예비 세션 ‘2016 서울대-도쿄대 연합세미나’를 통해 도쿄대 학생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4년 차를 맞는 연합세미나를 통해 서울대와 도쿄대 학부생들은 당해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토론과 토의를 진행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UT 학생들과 함께 - FICS



미디어

아시아연구소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온라인 뉴스레터 <아시아연구소 소식>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시아 연구의 대중화와 빠른 성과물 공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한 미디어 기반의 홍보 활동으로 국내외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아시아연구소의 소식 및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 미디어의 중심, 홈페이지



아시아연구소는 학술행사 정보와 연구소 안팎의 소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반응형 웹 기반의 국/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연구소의 홈페이지는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을 고려한 반응형 웹페이지로서 데스크톱, 태블릿 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상태의 화면 구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학술활동을 비롯하여 연구 활동, 교육, 출판, 채용 공고 등 다양한 분야의 뉴스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관리해오고 있다.

● 아카이빙 기능 강화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센터 및 주제연구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홈페이지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의 경우 통합 검색 기능을 통하여 다양한 DB 검색 기능을 탑재하는 등 연구기관으로서의 아카이빙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5개국어 버전 아시아연구소 소개 슬라이드 업로드 예정 (2017년 6월)



아시아연구소의 개관 및 구성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5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로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이다. 본 슬라이드 소개

자료는 아시아연구소 구성원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연구자 및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아시아연구소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될 것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수 4,000명 돌파

아시아연구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의 대표적인 매체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시아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전공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연구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SNS 매체 특성상 리트윗 기능을 통한 빠른 확산 속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2014년 3월 페이지 개설 이후 2017년 4월 현재, 4,0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도 단연 많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아시아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는 각종 학술행사의 사전 홍보 및 온라인 뉴스레터의 발간 공지, 각종 공지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행사 포스팅의 경우, 아시아연구소의 각 센터 및 주제 프로그램 측 주최로 개최되는 학술행사에 대해 아시아연구소 대표 홈페이지 링크 연동이 가능하도록 사전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아시아 연구 관련 출판물 발간 소식, 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주요 학



술회의 소식 등의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일반 대중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nuac>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식〉 2주년 14호 발간

온라인 뉴스레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식〉은 2014년 11월에 1호를 창간하여 2016년 11월에 14호를 발간하며 발간 2주년을 맞았다. 현재 〈아시아연구소 소식〉은 단순 행사 소개 및 홍보 차원의 연구소 소식지 틀에서 벗어나, 학술행사 및 연구 현장의 움직임을 현장성을 강화한 기사 콘텐츠로 기획하여 연구소 안팎의 뉴스를 내실 있게 담은 전문 웹진으로 발전하였다. 아시아연구소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반응형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식〉은 ‘커버스토리-뉴스-포커스-연구소 동정-학술활동-연구소 사람들-한국사회과학자리원 소식-출판-미디어-갤러리’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스와 포커스〉 섹션을 통해 2개월 간의 연구소 내 주요 학술행사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도하며, 연구소 동정 섹션을 통해 학술행사 외 각종 부서에서 진행한 주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과학자리원 소식〉이라는 공간을 통해 주요 기탁 및 업로드 데이터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각종 출판물 발간 소식 및 미디어 속에 보도된 아시아연구소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갤러리〉 공간을 통해서 연구소 구성원들의 필드 활동 결과물을 사진으로 제공함으로써 내부 콘텐츠 재생산의 인프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식지 : <http://snuacnews.snu.ac.kr>

IIAS 뉴스레터 동북아 소식통으로서의 아시아연구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는 네덜란드의 저명한 아시아 연구기관인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IIAS)가 발간하는 〈The Newsletter〉지의 ‘동북아시아로부터의 소식(News from Northeast Asia)’을 담당하고 있다. IIAS는 비교의 관점에서 아시아에 대한 학제적이며 통합적인 연구를 추구하면서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의 학문적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The Newsletter〉는 연 3회 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아시아학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을 연결시키는 주요한 포럼으로 역할을 해왔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소비를 위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이 증가했다. 이에 주목하여 아시아연구소는 2017년 〈The Newsletter〉 봄호 ‘동북아시아로부터의 소식’의 주제를 “한국, 일본, 중국의 투어리즘”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들의 지리적 상상과 체험, 중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관광이민 현상, 일본 아오모리 현 신고촌의 ‘그리스도 무덤’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2016년에는 “동아시아 음식문화의 역사와 혼종성”과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주제로 ‘동북아시아로부터의 소식’을 전하였다. 〈The Newsletter〉 웹사이트(<http://iias.asia/the-newsletter>)를 통해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직접 선택하여 전하는 동아시아에 관한 주요 현상이나 주제를 다루는 영문 기사를 접할 수 있다.



*〈The Newsletter〉사이트 주소 : <http://iias.asia/the-newsletter>

후원/재정

연구기금

(주)삼익악기 김종섭 회장 (10억 원)
(주)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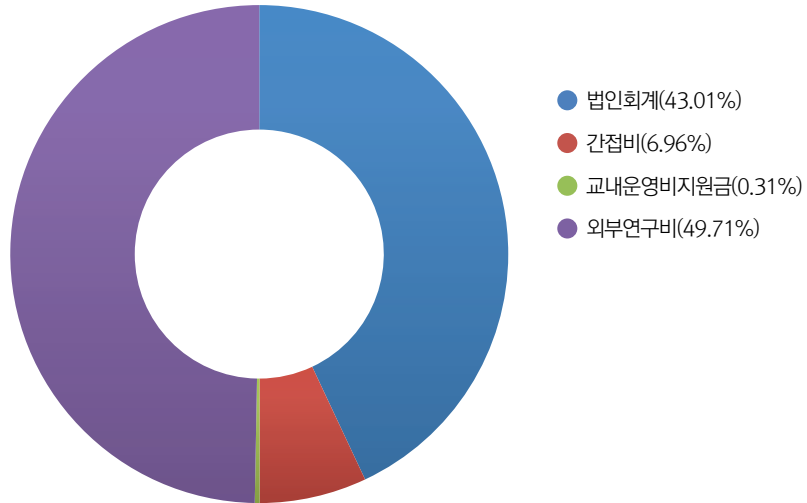
3Plus Logistics 김영석 회장
(학술교류기금, 1억 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임현진 교수
(임길진 Fellowship, 1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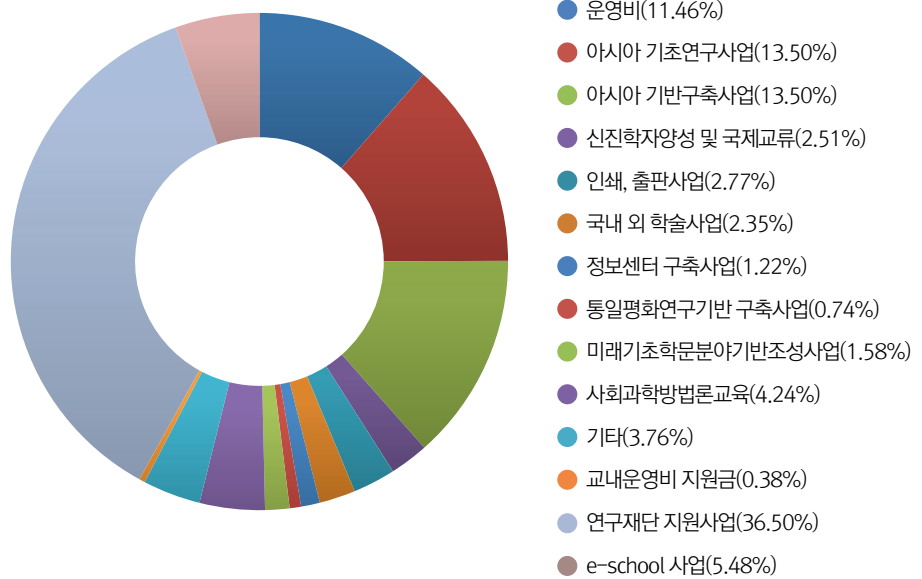
한국 사회과학자료원 기금 (8억 원)

※2009년 이후 누적분임

수입: 총 4,773,268,074원



지출: 총 3,788,604,525원



※ 외부연구비(수입): 국제교류재단(2016. 3 ~ 2017. 2 KF Global e-School),
한국연구재단(2016. 9 ~ 2017. 2 외부연구비 지원사업 참조)

※ 외부연구비(지출): 국제교류재단, 한국연구재단(2016. 3 ~ 2017. 2)

※ 그 외 사업기간 회계 및 산정 기간: 2016. 3 ~ 2017. 2

연혁

- 2009년 2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출범(창립 소장: 임현진 교수)
- 2009년 9월 제1회 SNUAC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란 무엇인가: 회고와 전망' 개최
- 2010년 7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신축건물 기공(2013년 2월 완공)
- 2010년 9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1년 3월 KF Global e-School 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1년 10월 제2회 SNUAC 국제학술대회
'Global Challenges in Asia: New Development Model and Regional Community Building' 개최
-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 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
- 2013년 3월 아시아 연구기반 구축사업 시작
- 2013년 4월 <열린강연> '이제는 아시아시대' 개최
- 2013년 5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식
- 2013년 9월 제2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취임(강명구 교수)
- 2013년 9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단계 진입
- 2013년 11월 <인도 문화주간> 개최
- 2014년 3월 세계 아시아연구소 소장회의 'New Horizons of Asian Studies' 개최
- 2014년 9월 신흥지역연구사업 2단계 진입, SSK 사업 중형 단계 진입(국제무역, 통상질서 그리고 표준화 연구단) 및 신규 유치(동아시아와 도시연구단), 토대연구사업 선정
- 2014년 11월 <인도네시아 문화주간: 오감으로 느끼는 인도네시아> 개최
- 2015년 6월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관
- 2015년 7월 <아시아리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 2015년 10월 아시아자본주의 국제학술회의
'Capitalism and Capitalisms in Asia: Origin, Commonality and Diversity' 개최
- 2016년 4월 국제학술회의 <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 개최
- 2016년 9월 <동아시아 경제사회 공동체의 협력과 통합>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단계 진입
- 2016년 10월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 실크로드의 진주, 우즈베키스탄을 만나다> 개최
- 2016년 12월 2016년도 아시아연구 기획연구과제 총 12개 선정







사람들

※2016년 3월 ~ 2017년 2월 기준

소장 강명구(언론정보학과)
 부소장 오명석(인류학과)
 학술연구부장 김봉근(경제학부)
 국제교류부장 박배균(지리교육과)
 인재개발부장 홍석경(언론정보학과)
 동북아시아센터장 이정훈(중어중문학과)
 동남아시아센터장 오명석(인류학과)
 중앙아시아센터장 신범식(정치외교학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디렉터 이재열(사회학과)
 대중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김홍중(사회학과)
 미-중 관계 프로그램 디렉터 정재호(정치외교학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 김의영(정치외교학부)
 시민사회 프로그램 디렉터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창립소장)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 디렉터 박지형(경제학부)
 환경협력 프로그램 디렉터 박수진(지리학과)

선임연구원

고가영(역사학)
 공석기(사회학)
 김성규(산업사회학)
 김유미(국제학)
 김은혜(사회학)
 김정민(국제학)
 김종철(사회학)
 김태연(정치학)
 남은영(사회학)
 라미령(경제학)
 신혜선(언론정보학)
 심한별(도시계획학)
 양승조(역사학)
 엄은희(지리교육학)
 이요한(국제관계학)
 이준표(법학)
 이지혁(국제학)
 정범모(인류학)
 조규훈(종교학)
 진윤아(가족관계학)
 최경희(정치외교학)
 최문희(사회학)
 최아영(역사학)
 황진태(지리학)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고지영(방법론교육)
 김대훈(자료개발)
 김혜진(질적자료)
 이상운(통계자료)
 진윤아(방법론교육)
 한아름(문헌자료)
 허혜옥(조사자료)

연구원

김예인(홍보)
 김현민(국제교류)
 박찬진(개발협력)
 양나름(아시아자본주의)
 최현아(부속실)

행정지원

윤화식(행정총괄)
 김고운(학술연구)
 김봉준(출판/자료)
 박종홍(디자인)
 백현지(연구과제관리/e-School)
 김주영(국제교류)
 이민영(연구과제관리)
 정선주(법인회계/일반행정)



직원연구원

Blaž Kržnik(한양대)
권혁용(고려대)
김도균(경기연구원)
김미경(히로시마시립대)
김민환(서울대)
김수정(충남대)
김용덕(광주과학기술원)
노재연(숙명여대)
박영은(한양대)
박영훈(서울대)
신광영(중앙대)
안청시(서울대 명예교수)
윤선희(한양대)
윤익중(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선우(서울대)
이성범(서강대)
이재진(한양대)
이태동(연세대)
임경택(전북대)
정미경(부산외대)
주윤정(서울대)
표학길(서울대 명예교수)
홍정표(Miyazaki Int'l College)
황석만(창원대)

국제자문위원

강찬수(KTB투자증권 고문)
김영석(3Plus Logistics 회장)
최인수(前 서울대 미술대학 학장)

방문연구원

Chantha Chea(Royal Academy of Cambodia)
Xiaowei Chuai(Nanjing Univ.)
Cencen Hu(Renmin Univ. of China)
Elise Sook Yong Youn(UC Berkeley)
Kyle Gibson(York Univ.)
Heyun Sun(Communication Univ. of China)
Jamie Doucette(Univ. of Manchester)
Jinn Yuh Hsu(Nat'l Taiwan Univ.)
Natalia Kim(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
Mirkomil Sadikov(Kadir Has Univ.)
Peter Abrahamson(Univ. of Copenhagen)
김아름(도쿄대)
이민(중국사회과학원)
전갑생(역사학연구소)
최은정(프린스턴대)
한지혜(베를린자유대)





2016 연차보고서

발행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발행일: 2017년 3월 24일

발행인: 강명구

기획: 홍보위원회

편집: 홍석경, 조규훈, 김예인

디자인: 박종홍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화: 02-880-2692

팩스: 02-883-2694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Phone : 02-880-2692

Fax : 02-883-2694

Homepage : <http://snuac.snu.ac.kr>
Facebook : <http://www.facebook.com/snuac>
Newsletter : <http://snuacnews.snu.ac.kr>
E-mail : snuac@snu.ac.kr